Entertainment p/20



'국제시장' 韓영화 흥행 2위

metro®

메트로 2015년 2월 9일 월요일 제3153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1



기성용 체력 한계 어디까지

니들이 '꼼수'를 알어?



세습재벌 문제 없나◆相生 - 현대차 그룹 p/8

엠코 이어 글로비스도 공정거래법 벗어나
겉으론 '법 존중' 실제론 '일감 몰기' 지속

센 언니 '미쳐'로 컴백, 포미닛 p/18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이완구 - 재벌 - 언론 p/22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구제역 발생 현황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8일 홍성군 구제역 발생 지역을 방문해 방역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홍성군에는 충남의 대표적인 축산단지가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실장 잔류할 듯

청와대 소폭 개각… 이완구 후보 인준 후 단행

청와대는 8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뒤 소폭 개각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심이 집중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더 두고 보자'며 잔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박(비박근혜) 일색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요구해 온 만큼 당·청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각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소폭이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오는 10~11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있지만 본인과 차남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할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개각 인사 역시 차질이 예상된다.

민 대변인은 김 실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두고) 보자"며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선출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비서실장과 비서관 몇 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적쇄신에 관한 한 당청 간 인식차가 크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에 김재춘 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박민권 현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에 최재유 현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한편 장관 인사의 폭과 관련해서는 공석인 해수부 장관 외에 통일부 장관 교체설도 나오고 있다. 한 통일연구기관 전문가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3년차에 접어드는데 그동안 남북대화를 정부당국이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가 좌지우지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 돼 왔다"며 "현재 대북라인이 충분한 정책적 유연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없다면 3년차에 접어들기 전에 전면 쇄신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박 대통령 러시아 전승절 참석 '글쎄'

박근혜 대통령의 연내 미국 방문계획이 확실시됨에 따라 오는 5월에 있을 러시아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의 참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7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박 대통령의 연내 미국 방문 계획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현재의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 및 국제정세에 비추어 금년 중 박 대통령의 방미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는 데 한·미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성공적인 방미가 되도록 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방미 시기, 형식 및 의제 등 구체사항에 대해서 외교채널 등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앞두고 있다. 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측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행사 참석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박 대통령의 참석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측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국이 공통된 대북 정책 기조 속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비핵화 프로세스를 조기에 가동하기 위한 공조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기념행사 참석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윤아기자 yoona1@



"이 후보자는 총리 자격 없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후보자가 비뚤어진 언론관, 인사청문회 방해행위 등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10년간 북간첩 42% 위장 탈북민

북한당국이 간첩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남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윤영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8일 '월간 북한' 2월호에 기고한 '탈북민 증가와 위장 간첩 실태'란 보고서에서 "탈북민 유입이 늘기 시작한 2000년대에 들어 북한당국은 위장 탈북민 간첩 침투를 통해 국가안보망을 흔드는 대남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안당국이 검거해 구속한 북한 간첩의 42%가 위장 탈북민 간첩이었다. 북한 대남공작기관별로 파견한 탈북민 위장 간첩은 국가안전보위부 10명, 정찰총국 5명, 군 보위사령부 3명, 조선노동당 35실 1명, 기타 2명이었다.

김 연구관은 "위장 탈북민 간첩이 일반 탈북민 속에 편승해 침투한 뒤 공안당국의 합동신문만 무사히 통과하면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해 정착지원금과 임대주택 등을 지급받아 주거지에 정착할 수 있고 신변보호 기간이 끝나면 국내외 활동이 자유로워 공작지령 수수 등의 대남공작 활동의 기반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탈북민 행렬에 합류해 잠입한 위장 탈북민 간첩은 북한이 고정간첩이나 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령한 ▲국가기밀 탐지 ▲특정인사 암살 ▲탈북민 북송 및 재입북 유도 ▲위장 귀순 후 지령 대기 ▲탈북민 동향 파악 ▲재중 국정원 직원 파악 ▲고정간첩과의 연계 ▲위폐 전환 ▲재미교포 유인 ▲사회혼란 유언비어 조작 유포 ▲친북성향 인물 회유 월북 ▲이산가족 명단 수집 ▲군사기밀 탐지 ▲전략물자 구입과 산업정보 유출 ▲북한 선전물 유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파견 방법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서 직접 양성한 간첩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남파시키는 방법 ▲사업상 남한과 중국을 오가는 탈북민을 포섭 납치하거나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탈북민들을 불법월경죄로 체포 납치해 대남 공작원 기본교육을 시킨 후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 ▲중국 체류 강제북송 탈북민 중 정보적 가치가 있는 자의 가족을 볼모로 하거나 처벌 면책을 미끼로 포섭해 대남공작원 기본교육을 시킨 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남파하는 방식 등이다.

/정윤아기자

병역의혹 이완구 차남, 이번엔 건보료 의혹

"억대 연봉 받고 안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미국계 로펌의 변호사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MRI촬영을 통한 검증 이후에도 병역면제 사유가 된 연골·인대 수술을 본인이 요청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건강보험공단이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남 이모씨는 미국계 로펌에서 일하면서 별도로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와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2400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미국계 로펌 폴헤이스팅스사에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 측이 공개한 자료에는 이씨가 근무 기간 동안 약 550만홍콩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7억7000만원)를 받았다고 나와 있다. 약 2억3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셈이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요율을 대입하면 이씨는 연 약 720만원, 해당기간 합계로 2400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국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비율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이 후보자가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으로, 이 후보자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충남 부여로 주소를 옮긴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형이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그러면서 공단부담금 수급을 정지 받지 않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부담금을 수급했다.

진 의원은 "많은 서민들이 이미 부담스러운 건보료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액 연봉에도 보험료는 안 내고 수급만 받는 얌체 가입자가 총리 후보자의 아들이라면 그런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송병형기자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당대표에 문재인 선출

대선도 재수하면 1등 할까요?

文, 대권 재도전 교두보 마련…당 분열 위기 넘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서 45.3%의 득표율로 승리해 대권 재도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문 신임 당대표는 부산의 명문 경남고에서 수재로 이름을 날렸지만 1971년 서울대 진학에 실패해 재수 끝에 72년 경희대 문과 전체 수석으로 법학과에 입학했다. 대선 재수도 과연 1등을 할 수 있을까. 대입 재수 시절 문 대표는 학창시절 내내 자신을 괴롭힌 가난과 싸워야 했다.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대선 재수는 '빈곤한 비전'과의 싸움이자 '분열된 야권' 내부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문 대표는 이번 경선에서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박지원 의원의 네거티브 전략에 휘말려 막장 싸움을 되풀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근혜정부의 '복지 없는 증세' 정책이 전방위적인 비판에 부딪혀 동력을 상실해 가는 와중에도 기존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다시 제시하는 데 그쳤다. 국민들 중 소득주도성장론의 실체를 알고 있는 이는 드물다. 문 대표의 비전 제시가 보여주기에 그쳤다는 의미다.

문 대표는 경선 내내 '이기는 정당'을 위해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외쳤다. 문 대표가 '이기는 정당'을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은 '네트워크 정당, 스마트폰 정당'이었다. 문 대표는 "저도 당 재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모른다"며 "당원들이 스마트폰 하나만 보면 당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당과 당 밖의 지지자들을 한데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당내 반대파에서는 외부기반이 강한 문 대표의 전략적 선택이라며 경계해 왔다. 실제 김한길 전 대표 체제에서 '네트워크 정당' 추진 작업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김 전 대표 체제에서 실무작업을 담당한 장화철 전 새정치연합 인터넷소통위원장은 지난해 당을 떠나면서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시스템을 구축해 자료를 배포할 준비까지 모두 마쳤지만 지도부는 활성화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당내에는 '네트워크 정당'보다는 '중도주의'로의 노선 변경을 원하는 세력도 있다. 이번 경선을 거치면서 노선 변경을 원하는 세력과 문 대표 지지자들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당 안팎에서는 '분당설'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총선·대선 승리에 앞서 문 대표가 넘어야 할 시련이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문재인 신임 당대표. /연합뉴스



북적이는 전통시장 설 연휴를 열흘 앞둔 8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에는 제수용품을 사러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핵연료 재처리 '숨통'

비확산 조건부 '사용후 핵연료' 형상 변경 가능

앞으로 핵확산 우려가 없는 일부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현재 협정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연구·개발은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으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의 핵심 관심 사항인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새 협정문에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이 빠진다. 이 조항은 미국 정부가 원자력에너지법 123조에 따라 원자력협정을 새로 맺거나 개정하는 나라들에게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도록 하고 농축·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또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미국의 사전 동의 의미)는 표현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미국의 비확산 정책도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후 핵연료의 형상을 변경하려면 핵 확산 우려가 없다는 점이 충족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이는 한·미간 협의에 따라 비확산 차원에서 문제가 없을 때는 미국이 우리의 형상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한·미 양국은 부속서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급한 일부 연구·개발 과제가 이미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국은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과 사용후 핵연료 저장 등 3개 분과위로 구성된 원자력 연료주기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새 협정 체제 가운데 핵확산 우려가 없는 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원전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 문제와 관련해 현재 협정에는 농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새 협정에는 농축도 재처리와 마찬가지로 한·미 간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협상의 3대 목표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원전수출 증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새 협정문에 어떻게 담을지 미국과 합의하고 사실상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소식통은 "주요 내용에 대한 협상은 다 됐으며 남은 부분이 협상의 타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고 말했다.

새 협정 기간은 미국의 관례에 따라 30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된다. 새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미국은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한·미는 새 협정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시간을 더 갖기 위해 2013년 4월 현행 협정의 만기를 2년 연기한 바 있다. 이 2년 연장안을 발효하는데 11개월 정도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국은 조만간 협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윤아기자 yoona1@m

예산부족으로 안보 위기

동시다발적 사업 추진 탓… KFX·KAMD 빨간불

동시다발적인 대형 전력증강 사업 추진으로 2020년까지 방위력개선 분야의 소요 재원에 비해 국방예산이 30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8일 드러났다. 한국형전투기(KFX)·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업 등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일각에서는 안보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요구 재원은 96조원으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66조원을 30조원 초과하는 실정이다.

백 의원은 "KFX·차기전투기·차기다련장 등 주요 무기획득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준비 중인 킬 체인과 KAMD 구축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단순한 무기획득사업 연기가 아니라 전력증강계획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 심각한 안보위기"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이명박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이어져 온 국방예산 홀대가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주요 대형사업들의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2016~2020년 소요 재원이 급증했고 그 결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차이가 심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윤아기자

복지 구조조정 하면 매년 12조원 절감

7가지 주요 복지사업의 구조조정만으로 매년 12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불필요한 복지 지출을 먼저 손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내놓은 분석이다.

8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7가지 분야에서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새누리당 개혁안으로 40년간 매년 3조5000억원 절감) ▲무상급식(소득하위 70% 제한 적용으로 매년 8000억원 절감) ▲건강보험·국민연금(악성장기체납자 대상 매년 2조5000억원 징수) ▲복지사업(누수액 매년 최소 2000억원 차단) ▲지방교육재정(이월·불용액 4조2000억원 구조조정)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국고보조금(매년 최소 1조원 절감) ▲감사원 감사 (변상·추징·회수·보전 금액 매년 약 3000억원) 등이 그것이다.

이 관계자는 7가지 항목을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적은 목록)'로 설명하면서 "이들 7가지 복지 구조조정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면 12조원 넘는 재정지출이 절감돼 지난해 발생한 세수 결손액 11조원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며 "이런 노력을 다 하고 나서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아베 역사관 문제 많다

일본국민 44% "침략사죄 표현 담아야"
미국 사학자들 '역사왜곡'에 집단 설명


고개숙인 아베 총리. /AFP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존재를 부정하는 등 아베정권의 역사왜곡에 대한 국내외적인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6~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8월 발표할 '전후70년 담화'에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 표현을 써야 한다는 응답이 44%에 달했다고 8일 보도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34%에 그쳤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도 아베정권의 역사왜곡에 쓴소리를 내고 있다.

우에 요시히사 공명당 간사장은 "총리 담화는 국가의 기본적인 자세를 안팎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베 정부가 담화 작성에 앞서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미국 역사교과서까지 수정하려는 아베정부의 역사왜곡 시도에 미국 역사학자들까지 들고일어났다.

미국역사협회(AHA) 소속학자 19명은 "어떤 정부도 역사를 검열할 권리가 없다"는 집단성명을 통해 아베정부의 역사왜곡 시도를 통렬히 비판했다.

성명은 "일본군 위안부 숫자가 잘못됐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이 명백히 잘못됐다"며 "일본 정부문헌에 정통한 역사가인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주오 대학의 신중한 연구와 아시아 생존자들의 증언은 국가가 후원한 성노예에 준하는 시스템의 본질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일본 우익 극단주의자들은 위안부 문제를 기록으로 남기고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쓰는데 관여한 언론인들과 학자들을 위협하고 겁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국명기자

미국, 결국 지상군 파견하나

4월 투입 가능성… 인질 사망설에 압박 거세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미국 지상군 파견 가능성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인간방패'까지 내세운 IS를 국제동맹군의 공습만으로는 격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7일(현지시간) CNN방송은 미 중부사령부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미군이 IS의 주요 점령지에서 이라크 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4월 투입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는 "이라크 2대 도시이자 유전지대인 모술을 되찾기 위해서는 공습과 이라크군 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여성 인질 사망설은 지상군 파병을 거부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IS는 2013년 8월 납치한 케일라 진 뮬러가 요르단의 공습으로 6일 시리아 락까의 외곽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종전과 달리 IS가 사망한 인질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공개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나세르 주데흐 요르단 외무장관은 "인질을 '인간방패'로 세우고 공습으로 죽었다는 주장은 테러리스트들이 수십 년간 써온 낡고 역겨운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만약 IS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뮬러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지상군 파병 압박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이 IS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 온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IS를 성공적으로 격퇴하려면 약 1만명의 미 지상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요르단·UAE, IS 보복 폭격

국제동맹군의 폭격은 사흘 연속 이어졌다.

요르단 국영 방송은 7일 "공군 조종사들이 출격해 IS 테러 단체의 근거지를 폭격했다"며 "지난 사흘간 최소 60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전했다.

미군이 주도하는 국제동맹군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하루 동안 시리아에 11차례, 이라크에 15차례 공습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 공습을 중단했던 아랍에미리트(UAE)도 전투기 F-16이 중심이 된 1개 비행중대를 요르단에 주둔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아랍의 봄' 3년 만에 실패로 7일(현지시간) 예멘 수도 사나의 한 스타디움에서 사나 후티 반군 병사들이 정권을 잡은 것을 축하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 2012년 2월 독재자 알리 압둘라 살레가 퇴출당하면서 시작된 '아랍의 봄'은 사나 후티 반군의 구테타 성공으로 사실상 3년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신화 뉴시스

'로맨티스트' 저커버그

부인 근무했던 병원에 810억원 기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의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로맨티스트'의 면모를 유감없이 뽐냈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SFC)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부인인 소아과 의사 프리실라 챈이 근무했던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SFGH)에 7500만 달러(약 810억원)를 기부했다. SFGH는 기부금으로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고 병상 수와 응급실 규모를 늘리는 데 쓸 예정이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SFGH는) 샌프란시스코의 중심 공공병원이고 우리 커뮤니티를 위한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이 병원이 치료하는 가족 중 건강보험이 없거나 보험 혜택이 모자라는 경우가 70%가 넘는다"고 기부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저커버그는 하버드대학 시절 만나 챈을 만나 9년간 사귀다 2012년 5월 결혼했다. 영어를 전혀 쓰지 못하는 챈의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지난해 중순부터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등 저커버그는 챈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하고 있다. /이국명기자

metro Colombia

베네수엘라 생필품 전쟁

쿠데타설까지 확산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가 정치 파국을 부르고 있다.

메트로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가 1년 넘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베네수엘라의 소비자 물가는 93.2%나 상승했다. 유가 하락으로 국가 수입이 줄면서 체감 경기도 나빠졌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제 비누나 세제를 사려면 국영 상점 앞에서 하루 종일 긴 줄을 서야 한다.

생필품 품귀 현상에 항의하는 시위도 잦다. 지난달에는 야당 당수 출신의 지방 주지사 엔리케 카프릴레스가 "무능한 대통령에 맞서 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국의 불안정도 심화되고 있다.

정치적 위기 상황에 몰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다. '불순한 세력'이 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경찰은 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약국 체인 파르마토도의 CEO를 '생필품 대란 조장' 혐의로 체포했다. 정부는 파르마토도가 "국민을 상대로 경제 전쟁을 조장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언급하지 않았다. 파르마토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영 상점은 아무런 협의도 받지 않았다. 정부는 당분간 파르마토도를 국영화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La "guerra económica" continúa en Venezuela

◆베네수엘라 대통령 정적 제거 나서

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정적 견제에 나섰다. 마두로 대통령은 "'경제 전쟁'을 조장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4월에도 쿠데타 음모가 적발될 정도로 정국 상황이 불안하다. /정리=장윤희기자

하나·외환銀 통합 시나리오는?

하나금융, 오늘 하나은행장 공식선임…새판짜기 주력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하나금융그룹이 요동치고 있다.

통합을 주도하던 임원 3명은 옷을 벗었고, 직무대행체제인 하나은행장 자리는 공식 선임을 앞두고 있다.

◆ 장기 표류 대비책 마련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9일 그룹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차기 하나은행장을 확정·선출키로 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6일 임추위 1차 회의에서 김병호 하나은행장 직무대행과 함영주 충청사업본부 담당 부행장, 황종섭 영남사업본부 담당 부행장 등 3명을 하나은행 행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는 법원의 가처분 용인으로 모든 합병 절차가 중단된 데 따른 조치다. 그간 하나금융은 외환은행과의 합병을 고려해 행장 선임을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합병의 장기 표류 가능성에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하나금융은 오는 6월 말까지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은 박성호 전무와 권길주 전무를 각각 전략담당(CSO) 임원과 준법감시인에 선임하고, 곽철승 상무를 재무담당(CFO)에 맡겨 합병 추진 업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 김정태 회장, 연임은 이상무?

한편 금융권에서는 하나·외환은행 통합 절차 중단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연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오는 3월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 회장은 '조기통합 대박론'을 내세우며 통합절차를 강행해왔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으로 김 회장의 리더십에 금이 간 것.

물론 금융권에서는 통합과 상관없이 김 회장이 조직을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지난해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미치며 이에 따른 책임론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4분기 51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보다 81.4% 감소한 규모로 모뉴엘과 삼부토건 등 2800억원에 이르는 일회성 요인이 영향을 줬다.

계열사인 외환은행 역시 모뉴엘 대손비용 682억원과 외환파생 관련 손실에 따라 전년대비 17.8% 내린 3651억원의 당기 순익(연결기준)을 시현했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외환카드 분리로 6400억원 자본금이 이탈하는 등 외환은행 실적이 급락하고 있다"며 "수익성 하락은 김정태 회장 경영실패의 결과로 이에 대한 검증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뛰는 전셋값, 경기지역 분양단지 '호호'

올 11만2752가구 분양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3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경기지역 분양시장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비싼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서울 전세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새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 들어 한 달여 만에 1.32%가 올랐다. 2013년 1월과 비교해서는 20.84% 상승했다.

서울 3.3㎡당 평균 전세가 1000만원 시대는 일찌감치 시작됐다. 지난해 3월 1003만원을 기록한 이래 현재 1062만원까지 치솟았다. 작년 경기도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 1051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서울에서 경기도로 거주지를 옮기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전체 전입 인구 6만6720명 중 서울에서 들어온 인구가 3만8960명으로 58.4%로 나타났다.

경기권역 미분양 소진도 두드러진다. 2014년 한 해 미분양아파트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로 총 2173가구가 판매됐다. 고양시(2126가구)와 파주시(1679가구)가 뒤를 이었다.

올해 경기도에서 분양을 계획한 물량도 상당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28만7650가구)의 40% 수준인 11만2752가구가 경기지역에서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청약 광풍을 일으킨 동탄2신도시에서 오는 3월 4개 단지가 분양 대전을 펼친다. 아이에스동서가 A34블록에서 '에일린의 뜰'을, 반도건설이 A37블록과 A2블록에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과 6.0'을, 우미건설이 C-12블록에서 '린스트라우스1차'를 선보인다.

호반건설은 시흥 배곧신도시와 수원 호매실지구에서 서울 전세가보다 낮은 분양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박선옥기자 pso9820@

market index <6일>

코스피	1955.52	(+2.68)
코스닥	604.13	(+3.32)
금리(국고채 3년)	1.96	(−0.02)
환율(원·달러)	1090.20	(−0.50)



"대학생 주거 안정 지원"

하나은행은 8일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 마이룸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임차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순수전세는 보증금의 80%, 반전세인 경우 70%이내에서 신용대출로 취급한다. 개인별 총 신용대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출이율은 개인 등급별로 최저 4.7% ~ 5.5%이다. 대출 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이번 1차 한도는 20억원이다.

대출 신청은 하나은행 영업점과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은행 서민재무 상담사를 통한 사전 상담과 대출 관리, 금융교육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백아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배곧신도시 호반베르디움 3차 65㎡ 거실.

4호선 역세권…가변형 벽체 활용

분양돋보기

시흥 배곧 호반베르디움 3차

시흥 배곧신도시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조성되는 신도시로 시흥·안산 스마트허브(구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와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가 가깝다. 배후수요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주변 시화지구 약 2만 8000가구의 노후화 진행으로 새 단지에 대한 기대도 크다.

호반건설이 B11블록에 공급하는 호반베르디움 3차는 지하 1층, 지상 29층, 20개 동, 총 164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65~84㎡로 ▲65㎡A타입 171가구 ▲65㎡B타입 172가구 ▲84㎡A타입 1020가구 ▲84㎡B타입 56가구 ▲84㎡C타입 228가구로 구성됐다.

배곧신도시에 근접해 있는 전철역인 오이도역(4호선)까지 도보 15분 내외로 이동 가능하며 이는 배곧신도시 단지 중 전철역까지 가장 가까운 곳이다.

김태영 분양사업본부장은 "대형 유통망 부족과 대형 종합 의료시설이 없다는 점이 시흥시의 불편 사항이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롯데 복합몰 등 유통망 유치가 확정됐고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를 통해 서울대병원도 들어서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반베르디움 3차는 배곧신도시 내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호반건설의 아파트로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돼 눈길을 끈다. 전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맞통풍 판상형 구조, 4BAY(방+거실+방+방) 설계(일부세대 제외)를 선보였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878만원이다. 주택형에 따라 ▲65㎡ 2억1000만~2억3000만원 ▲84㎡ 2억7000만~4억9000만원 수준이다.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면 960만~1250만원이 추가된다.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2순위, 16일 3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특별공급 12일, 일반공급 25일이다. 계약은 3월 3일부터 5일까지다.

견본주택은 시흥시 정왕동 1771-1번지 서해고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했다. 입주는 2017년 12월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증시 받치는 '큰손' 연기금

7거래일 연속 사자세…"성장성 높은 종목 매수 이어질 것"

'큰 손' 연기금이 국내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낙폭이 컸던 대형주들이 반등을 모색하는 등 당분간 연기금의 순매수세가 성장성 높은 종목 위주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스피는 장 후반 연기금의 매수세 덕분에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장 후반 연기금의 매수세로 다시 상승 반전했다. 결국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68포인트(0.14%) 오른 1955.52에 마감했다.

앞서 연기금은 지난 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893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7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다.

이 기간 동안 연기금이 국내 증시에 쏟아부은 돈만 9113억원에 달한다. 특히 연기금은 개인과 외국인 모두 매도에 나선 지난달 28일에도 나홀로 3157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연기금이 하루에 3000억원 이상 순매수한 것은 지난 2011년 8월 9일 이후 약 3년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기간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대장주 '삼성전자'다. 연기금은 최근 삼성전자 주식 2559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또 현대모비스를 706억원 매수했고, 네이버도 633억원 담았다. 이어 SK텔레콤(576억원), 삼성에스디에스(531억원), 호텔신라(515억원), SK이노베이션(434억원), KT&G(384억원) 등을 매수했다.

코스닥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연기금은 연초부터 지난 6일까지 2200억원 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코스닥 강세의 숨은 공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기금은 지난해 12월 셋째 주부터 8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해 6~8월 이후 최장기간 순매수 행진이다.

올 들어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엔터주'와 '게임주'다. 연기금은 다음카카오를 864억원 순매수하며 가장 많이 사들였다. 또 CJ E&M(244억원), 에스엠(219억원), 와이지엔터테인먼트(209억원) 등도 순매수했다. 연기금은 이어 내츄럴엔도텍(161억원), 위메이드(131억원), 산성앨엔에스(125억원), 컴투스(104억원), NEW(103억원), 디티앤씨(82억원) 등을 사들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닥시장의 체질 개선이 기관투자가에게 어필하면서 코스닥지수의 추가 상승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분석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신한은행, 지역장 162명 워크숍 신한은행은 지난 7일 현장 중심의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장 162명을 선발,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신한은행 제공

"신용카드 해지시 적립된 포인트 사용가능"

금융위·공정위, 7개 카드사 대상 '불공정약관' 개정

앞으로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적립된 포인트는 유효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등을 요청한 고객에게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소멸기간과 사용방법 등을 안내해야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7개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약관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 약관조항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카드사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씨티은행, 광주은행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7개 카드사는 고객의 탈회 시 잔여 포인트를 무조건 자동 소멸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카드 이용계약 종료의 형태나 사유를 불문하고 잔여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제한되면 고객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고객의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 시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등을 고지해야 한다.

또 카드를 해지했지만 회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과 똑같이 보장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카드 이용계약 종료 시 잔여포인트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명확해지고,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에 관한 바람직한 업계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금융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상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개정 약관을 이달 내 금융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다.

/백아란기자


ROCKPORT
ROCKPORTKOREA.COM ©2015 THE ROCKPORT COMPANY, LLC. ROCKPORT®
Bend
the RULES
of MOVEMENT.
Glove Like Fit, Controlled Flexibility,
All Day Comfort.
TOTAL MOTION
SOFT
FLEX
STABLE
Total Motion Pump infused with
ADIPRENE® by adidas
#PoweredByRockport
전국 매장 문의 080.344.3232 IFC 02.6137.5100
facebook.com/RockportKorea
TOTAL MOTION 45MM WEDGE BRAND PEEP

정몽구 현대차 회장일가, 일감 몰아주기 '꼼수'

부당내부거래 개선책 외면하고 지분만 축소
당국·업계 "공정거래법 취지 우롱" 지적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에 성공함으로써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장남 정의선 부회장은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칼날을 일단 피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현대엠코도 현대엔지니어링에 흡수합병되면서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14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의 근본 취지는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과 부당이득 방지에 있는데, 정 회장 부자는 이를 역으로 교묘히 이용해 사실상 법정신을 우롱했다는 지적이다. 일감 몰아주기 축소나 방지책을 내놓는 대신 총수 일가 지분율을 딱 법 한도치까지 낮춤으로써 앞으로도 일감몰아주기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천명한 셈이라는 것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재계 등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엠코(합병법인 현대엔지니어링)는 현대차그룹 후계자인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다. 이들 회사는 앞으로도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더라도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독점규제·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 중 내부거래 규모가 연간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가 넘는 일감을 계열사로부터 수주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내부거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부당한 내부 거래와 관련된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이익제공기업과 수혜기업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고형은 징역 3년이다.

현대차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내부 거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피하는 건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지 않는 일종의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애초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만든 취지는 재벌 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38조 3항)를 근절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다른 중소기업 등에게 주어질 사업기회가 박탈되고 편법적인 상속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정 회장 부자는 규제 시행 시점이 임박하자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할인된 가격에 처분했다. 매각 가격은 현대글로비스의 5일 종가(23만7000원) 대비 2.74% 할인된 주당 23만500원이다. 매각대금은 약 1조1576억원이다. 파격적인 조건이다.

이번 매각으로 정 회장 부자의 지분율은 43.38%에서 29.99%로 낮아졌다. 상한선이 30%에서 딱 10주가 모자라는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말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74.89%에 달했다.

앞서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도 업계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석연찮은 의외의 합병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건설계열사인 현대건설을 두고 플랜트 등을 주로 설계하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했기 때문이다.

현대엠코는 지난해 4월1일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흡수합병됐다. 당시 현대엠코 지분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25.06%, 정몽구 회장 10%로 총수 일가를 합치면 35.06%였다. 두 회사는 모두 비상장 기업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상 비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이 20%이상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다.

통합후 현대엔지니어링 지분은 정의선 11.72%, 정몽구 4.68%로 합쳐도 16.4%에 그친다. 합병이라는 '기발한' 카드로 현대엠코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간 것이다.

정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중인 계열사들은 대부분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칼날을 피해가는 작업을 완료했거나 준비중이다.

정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현대엠코(25.06%)와 현대위스코(57.87%)는 지난해 각각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위아와 합병됐다. 합병 후 정 부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율은 규제 범위 밑으로 떨어졌다.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이 총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현대오토에버도 동종 시스템통합 계열사(SI) 현대C&I를 합병하면서 규제 해소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정 회장 일가 지분은 29.5%로 여전히 규제 대상이지만 향후 상장하게 되면 3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계열사는 이노션과 서림개발, 현대머티리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등이다.

광고대행사인 이노션의 경우 정 부회장은 오너 지분을 줄이기 위해 지난 8월 보유지분 30%를 재무적투자자(FI)에 매각했지만 여전히 정 부회장과 누나 정성이 고문이 보유한 지분은 50%에 이른다. 그러나 이노션이 올 7~8월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상장 과정에서 정 부회장과 정 고문이 보유한 지분을 털어낼 가능성이 높다.

현대머티리얼의 그룹 계열사 일감을 줄이는 형태도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현대머티리얼 내부거래 비중은 2012년 61.75%에서 2013년 32.36%로 크게 줄었다. 이 회사는 정 부회장의 사촌인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 오너 일가가 정부의 공정거래법 취지를 무색하게 꼼수를 써가며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한국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존경받는 기업인이 취할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아닌 것 같다"며 "규제 회피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노션 등도 합병 또는 지분매각 방식의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훈기자 fun@metroseoul.co.kr

프리미엄 디지털 엑스레이 출시

삼성전자, 한국·서유럽 중대형 병원 공략

삼성전자가 디지털 엑스레이 신제품을 내놓고 중대형 병원 중심으로 글로벌 의료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사용성과 영상품질을 극대화한 프리미엄 디지털 엑스레이 'GC85A'를 한국과 서유럽에서 동시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의료진의 업무흐름이 최대한 간결하도록 사용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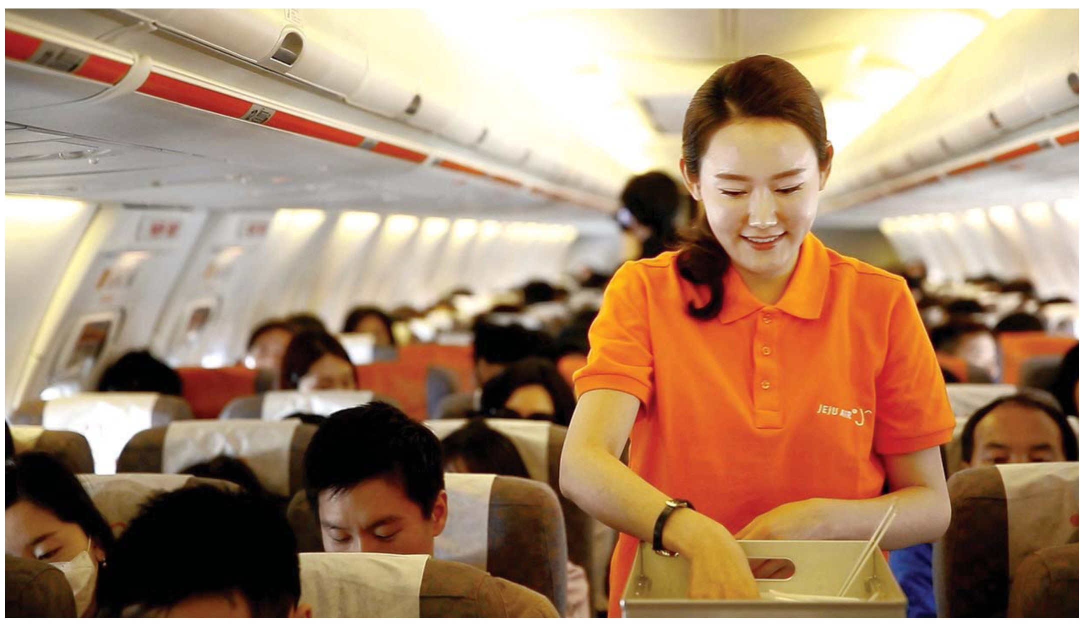


S-디텍터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엑스레이 조사방향을 수직으로 맞춰주는 'S-Align' 기능을 통해 정확하고 선명한 영상을 한번에 확보할 수 있으며, 촬영 각도를 다양하게 설정해 몸을 가누기 불편한 환자도 안전하고 빠른 촬영이 가능하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영상처리 기술인 'S-Vue'는 화면 노이즈를 제거하는 등 화질을 개선해 일관된 고화질 이미지를 제공하고 폐 혈관이나 관절의 중첩부위도 선명하게 표현한다. 삼성 엑스레이 제품 간 S-디텍터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S-Share' 기능을 제공하며, 예기치 못한 손상을 줄이도록 방수와 방진이 가능한 1.63kg의 초경량 S-디텍터도 지원한다.

조수인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 사장은 "GC85A는 우수한 영상품질로 진단의 신뢰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를 보다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제주항공 1기 승무원 원조비행 제주항공 1기 승무원이 6일 기내에서 승객에게 창립 10주년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항공 제공

박배호 건국대 교수, 포스코 청암상 수상자 선정

교육상 한동대…봉사상 신시아 마웅·비나 스와다야 재단

포스코청암재단은 8일 '2015 포스코청암상' 수상자로 박배호(44) 건국대 물리학부 교수(과학상), 한동대(교육상), 신시아 마웅(56)·비나 스와다야 재단(봉사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응집물질 물리학·나노과학분야의 권위자로 지금까지 발표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은 150여 건이 넘는다.

박 교수는 그래핀 내에서 마찰력이 현저히 다른 구역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노 소재와 소자를 직접 제작하고 새로운 물리적 현상을 측정·연구해왔다. 이 업적으로 아시아-태평양 물리학회연합(AAPPS)이 수여하는 '양전닝(楊振寧,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중국계 미국인 학자)상'(2013)을 수상했다.

한동대는 재정난과 지방대라는 불리함을 딛고 소수 정예 밀착형 교육을 통해 지역 간 인재균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다음 달 2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리며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각 2억원(공동수상 각 1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한편 청암상은 청암(青巖)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을 기리고 창업 이념인 '창의, 인재 육성, 희생·봉사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2006년 제정됐다.

/양소리기자 10sound@



·제품구성 : 더블리치 에센스 40ml · 리프팅앤 퍼밍 크림 50ml · 아이리프팅 에센스 30ml · 인스턴트 일루미네이팅 씨씨크림 45ml

*더타임테라피 www.thetimetherapy.com *머스테브 www.mustaev.co.kr *문의전화 070-8813-7546 *자세한 내용은 머스테브를 참조하세요!

소송의 연속 SAMSUNG LG 신경전 계속

삼성 "OLED 기술유출 유죄판결 불구 결백 어필 유감" vs LG "삼성 무리한 주장"

전자업계 라이벌인 삼성과 LG가 소송을 거듭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두 회사가 그 동안 기술경쟁을 통해 성장하며 현재의 위치에 오르긴 했으나 최근 몇년간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사이의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5월 삼성의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이 기소되면서 양사간의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으나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한 채 3년여 동안 소모적인 다툼이 이어졌다.

수원지법은 이날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 법인과 협력업체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LG디스플레이는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로 기술유출 혐의와 관련해 조직적인 공모를 했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결백함이 입증됐다"며 "삼성디스플레이는 피해규모가 5년간 30조원에 이른다고 과대 주장을 하면서 자사와 자사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등의 무리한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는 "범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LG디스플레이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9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행사 직전 벌어진 '세탁기 파손 논란'으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논란은 삼성전자가 당시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에서 LG전자 조성진 HA사업본부 사장과 세탁기 담당 임원들이 자사의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고의로 파손했다며 국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말 LG전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2015'를 앞두고 조 사장의 출국금지 조치까지 취해지면서 양사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다. 법조계와 전자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변호인은 지난달 말 접촉해 사건 해결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업 사이에 이런 분쟁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8월에는 삼성전자가 자사와 LG전자의 냉장고 용량을 실험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양사는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다 법원의 중재로 1년만에 갈등을 마무리했다. 2013년에는 삼성전자가 에어컨 시장점유율 1위라는 광고를 내보내면서 LG전자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소모적인 공방이 지속되면서 업계는 국내를 대표하는 두 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근의 세탁기 파손 논란의 경우 주요 외신에서 비중 있게 다루면서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과 같이 양사간의 경쟁이 브랜드를 알리는 노이즈마케팅이 된 경우도 종종 있으나 최근 삼성과 LG간의 신경전은 서로 도움이 안되는 것 같다"며 "어느 한쪽이 승소하더라도 결국은 서로의 브랜드 이미지에 상처만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LS산전 일본 태양광 발전소 완공

40MW급 현지 최대 규모



LS산전이 수주한 40MW급 일본 최대 태양광 발전소가 19개월만에 완공돼 가동에 들어간다.

LS산전은 지난 2013년 JRE(Japan Renewable Energy)로부터 수주한 이바라키(茨城)현 미토(水戶)시의 '미토 뉴타운 메가솔라 파크' 공사를 완료하고 6일 가동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JRE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가 일본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한 에너지 기업이다.

미토 뉴타운 메가솔라 파크는 50만㎡ 부지에 태양전지 모듈 3만9210㎾(15만6840장)와 전력개폐장치(RMU), 변압기 등 관련 장비를 갖췄다. 약 3만㎾의 출력은 현재 일본 내 가동중인 태양광 발전소 중 최대 규모다. LS산전은 메가솔라 파크 준공을 시작으로 일본 현지 태양광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종세 LS산전 일본법인장은 "JRE의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만큼 발전소 중심의 일본 메가솔라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태양광뿐만 아니라 스마트그리드 토털 솔루션을 앞세워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인기자

전략제품 소개행사 '삼성포럼' 개막

모나코·방콕·안탈리아·홍콩서 8회 열려



마이클 졸러(Michael Zoeller) 삼성전자 유럽 마케팅총괄 디렉터가 유럽 지역 미디어와 파트너들에게 삼성전자의 2015년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5일(현지시간) 모나코에서 유럽 포럼을 시작으로 대륙별 전략제품 소개행사인 삼성포럼을 약 3주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2009년부터 시작해 7회째를 맞는 삼성포럼은 지난해부터 신제품을 빠르게 여러 지역에 선보이기 위해 권역별로 통합 운영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모나코·태국 방콕·터키 안탈리아·홍콩 등 4개 지역에서 총 8회 개최되며 다양한 경영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별로 판매와 매장 관리 노하우를 주제로 한 비즈니스 특강 등을 펼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삼성포럼을 통해 전 세계 약 7000여명의 주요 파트너와 미디어를 직접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나코에서 진행된 유럽 포럼에서는 SUHD TV와 유럽스타일에 맞춘 프리미엄 가전을 비롯해 MX7프린터, NX500카메라 등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스마트오븐 MW8000J와 중급형 미러리스 스마트카메라 NX500, A3 복합기 'MultiXpress 7(MX7)' 시리즈를 유럽 포럼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윤부근 삼성전자 대표는 유럽 포럼 환영사를 통해 "IoT의 연결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술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인기자

고품질 '사운드 바' 2종 나왔다

한차원 성장된 무선기술



모델이 LG트윈타워에서 2015년 LG 사운드바 '사운드 바(모델명: LAS750M)'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가 대화면 TV의 성능을 한층 높여줄 수 있는 사운드바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LG전자는 9일 고품질 사운드를 구현하는 2015년형 '사운드 바' 2종을 국내시장에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운드 바는 가로로 긴 형태의 스피커로 사용자들이 TV나 다른 스마트 기기와 연결해 더 깊고 풍부한 음향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사운드 바(모델명: LAS750M)'는 4.1채널에 360와트(W)의 웅장한 음향을 제공한다. LG전자만의 독자 음향기술 SFX(Sound Field Extension)를 적용해 청취자를 감싸는 듯한 입체감이 탁월하다. 음량이 작아도 음질의 손실 없이 또렷하게 들려주는 '오토 사운드 엔진'도 탑재됐다. 블루투스뿐 아니라 와이파이 기능도 지원한다.

LG전자는 카톡이나 라인 등 메신저 앱으로 사운드 바를 조작할 수 있는 '홈챗' 기능도 내장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카톡 창에 "아침 7시 알람"이라고 입력 하면 사용자가 7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운드 바가 자동으로 음악을 틀어준다.

LG전자는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사운드 바(모델명: LAS550H)도 함께 선 보인다. 이 제품은 2.1 채널에 320 와트(W)의 출력을 갖췄다. 스마트 기기를 최대 3대까지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다.

가격은 와이파이 기능이 지원되는 'LAS750M'이 69만 9000원, 블루투스 전용 사운드 바 'LAS550H'이 49만 9000원이다.

/양성운기자 ysw@





PRINCESS CRUISES
escape completely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Diamond Princess)
총 톤수 : 115,875톤 / 총 탑승객 : 2,670명 / 승무원수 : 1,100명

2015년 단 2회! 부산승하선

한국/일본 크루즈 5일/6일

1,290,000부터 ▶ **6월 26,30일**

(**현지지불**▸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상팁 포함/**선택경비** 있음)

- 부산–크루즈 4박[부산–해상–고베–해상]–부산(6/26)
- 부산–크루즈 5박[부산–가고시마–해상–도쿄–해상]–부산(6/30)

- **하나투어 전문 인솔자 동행**, 100% 출발 확정, 전 객실 발코니객실 사용
- 하나투어 단독 기항지 관광 운영, 하나크루즈 2종세트 증정(기내용 슬리퍼, 승선카드 목걸이)
- 1인 10만원 추가시 미니스위트로 업그레이드(선착순 4객실), 4명이상 예약시 미니그룹 할인

추천 Point

2015년 단 2회! 항공료 없이 화려한 크루즈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 매일 밤 다양한 쇼와 수준높은 식사 무료 제공, 눈을 뜨면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는 개별 발코니 객실 사용



STAR CRUISES

스타크루즈 버고호(STAR CRUISES VIRGO)
총톤수 : 76,800톤 / 총탑승객 : 1,960명 / 승무원수 : 1,100명

3국 3색 크루즈의 매력을 한번에!

홍콩/심천/마카오 크루즈 4일

990,000부터

▶ **2월 23일~5월 매주 일,월,화,수,목요일 출발**(일부제외)

(**현지지불**▸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상팁 포함/**선택경비** 있음)

- 인천–홍콩–심천(1)–[크루즈 1박]–홍콩(1)–인천

- 크루즈 1박+호텔 2박, 하나크루즈 3종 세트[기내용슬리퍼/승선카드/에코백(캐빈당)]
- 하나투어 3만 마일리지 적립혜택

추천 Point

지금까지와의 뻔한 패키지여행과는 격이 다른 호텔+크루즈 숙박상품을 강력 추천합니다. 크루즈에서의 황홀한 추억도 쌓으실 수 있으며 한국승무원이 상주해 있으므로 언어의 부담없이 크루즈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홍콩/마카오/심천 3개국을 한번에 관광하실 수 있는 3국 3색의 크루즈여행의 묘미를 경험하세요.

하나크루즈 눈을 뜨면 새로운 관광지로 초대합니다.

상담문의 **02)2127-1757**

작게·다르게·실속있게… ‘열려라 지갑’

올해 설 선물 키워드는 ‘실속’과 ‘차별화’다.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세트, 불황에도 인기몰이 중인 디저트나 고급 수입 수산물 세트 등이 눈에 띈다.

유통업계는 최대 대목인 설을 맞아 새롭고 독특한 선물세트를 대거 선보였다. 특히 길어진 불황으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고객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상품 차별화에 힘썼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은 최근 대세가 된 1~2인 가구 트렌드를 적극 반영했다. 5마리 짜리 굴비세트, 3마리로 슬림하게 구성한 갈치세트 등 알뜰형 ‘소포장’ 제품을 대폭 확대했다.

불황에도 디저트는 지난해 백화점 매장 매출이 10% 이상 신장할 정도로 인기다. 이에 따라 백화점들은 디저트 품목을 20~30% 늘렸다.

랍스터·킹크랩 등 고급 수입 수산물도 선물세트로 출시됐다. 이마트는 랍스터와 수입갈치를, 롯데마트는 활 랍스터·활 전복 등 혼합세트를 선보였다. 홈플러스는 세계 왕새우와 정글 크레이피시 세트 등 이색 수산물 5종을 처음으로 판매한다.

식음료업체들은 2만~3만원대 저렴한 선물세트에 주력했다. 더불어 ‘웰빙’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선물도 다양하게 내놨다.

뷰티·패션·생활용품 업체들은 불황에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를 위한 실속형 세트로 인기몰이 중이다. 바디·헤어관리 제품 등 온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선물세트부터 기능성 화장품·속옷·구두까지 선택의 폭을 넓혔다.

카드 구매 고객 대상 할인과 구매 금액대 별 할인, 10개 구매시 1개를 더 주는 덤 행사, 배송비 무료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중이다. /생활유통부

유통업계 선물세트 물량 늘리고 가격 낮추고

◆ 롯데백화점 청과 10~20%인하… 이마트 ‘고급PL’ 대거 출시

롯데백화점은 설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15% 늘렸다. 한우 12만세트, 굴비는 4만5000세트, 옥돔·갈치는 4만세트 등을 더 확보했다. 굴비는 전년대비 60~80% 원물가격 인상에도 물량 확보로 가격 인상폭을 20~30%로 줄였다. 지난해 과수 피해가 크지 않았던 청과는 선물세트 가격도 10~20% 인하했다. 10만원 미만의 실속형 선물세트의 종류도 20% 가량 늘려 약 800여 가지 상품을 준비했다.

현대백화점은 ‘2015 설날 선물 상품전’에 수산물, 육류 등을 건조·숙성시킨 이색 ‘건조식품’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대표 상품으로 ‘제주 진공건조 마른굴비’도 지난해 추석보다 물량을 2배 확대해 600세트를 준비했다.

신세계백화점은 거제에서 잡은 대구를 건조한 ‘거제 외포 건대구 세트’(20만원), 고급 한우를 4~6주 건조·숙성시킨 ‘드라이에이징 한우 스테이크’(50만원) 등 차별화된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양의 해를 맞아 ‘후레쉬양갈비 세트’(20만원)도 출시했다.



/롯데백화점 제공

농협 하나로 클럽·마트 아침마루 사과·배 혼합(5만1000~5만6000원) 세트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고품질 농산물을 엄선해 대과크기 상품만 선별 포장했다. 농협 같이의 가치 1호(1만5900원)는 한삼인과 애경산업의 제휴로 한삼인의 홍삼 성분으로 만든 치약, 비누, 샴푸, 린스 등의 상품으로 구성했다.

롯데마트 한우 선물세트는 올해 처음으로 30만원 이상 프리미엄급 한우 선물세트 비중을 지난해 보다 20% 이상 늘렸다.

이마트는 제주도산 참기름, 프리미엄 유산균 등 고급 PL상품을 설 선물세트로 대거 선보였다.

◆ 옥션·11번가·티몬 등 온라인… 인기 선물 최대 70% 할인

옥션은 과일과 한우 등 선물세트부터 공연 티켓과 여행상품까지 설날 소비품목을 망라한 ‘설 선물대전’을 연다. 애경·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유니레버·옥시 등 인기 브랜드의 생활용품 선물세트는 1만원 미만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 또 천지양, 정관장 등 대표 홍삼 브랜드 선물용 상품을 최대 55% 할인 판매한다. 11번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 미리 사야 반값’ 행사를 오는 11일까지 열고 최대 76% 할인 판매한다. 매일 오전 9시마다 하루에 한 상품씩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소셜커머스 티몬은 설을 앞두고 20% 카트 할인과 무이자 10개월 할부 등 ‘2015 설프라이즈’ 기획전을 진행한다. 설기획전 상품 구매시 사용 가능한 티몬의 카트쿠폰은 다양한 상품을 카트에 골라 담고 총 금액이 3만원이 넘으면 6000원, 10만원이 넘어가면 2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GS샵 인터넷 쇼핑몰에선 16일까지 ’리얼명작 설 감사 선물대전‘을 열고 과일선물세트, 화장품 세트 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홈앤쇼핑은 14일까지 식품류를 강화한 설 명절 상품 특집 방송을 편성했다. 스테디셀러 상품인 ‘윤상섭 갈비찜’·‘박상면 불고기’·‘전철우 불고기’ 등을 내놓았다.

참치캔·홍삼… 200여종 구성

동원F&B

동원F&B(대표이사 박성칠)는 ‘건강’을 콘셉트로 한 선물세트 200여 종을 선보였다.

참치·캔햄 선물세트의 경우 2~3만원 대 실속형부터 5만원 이상의 고가 세트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또 연어캔을 고급스럽게 담은 ‘동원 연어 명작세트’와 프리미엄 김 세트인 ‘명장지선’ 등 고급 선물세트도 준비했다.

명장지선은 원초 명장이 전남 신안 앞바다 토종 돌김 중 질 좋은 원초만을 선별해 만든 명품 김세트다. 선착순 1000세트만 주문 생산한다. 홍삼브랜드 ‘천지인’과 동원F&B가 직수입하는 미국 1위 건강식브랜드 ‘GNC’ 세트도 선보인다.

홍삼 한 뿌리에 해당하는 사포닌이 캡슐에 담긴 고기능 캡슐홍삼 ‘천지인 메가사포니아 골드’의 경우 1+1 행사를 진행한다. ‘GNC 종합비타민세트’는 남성용 종합영양제 ‘메가맨’과 여성용 영양제 ‘우먼스 울트라 메가’가 각 1병(90정)씩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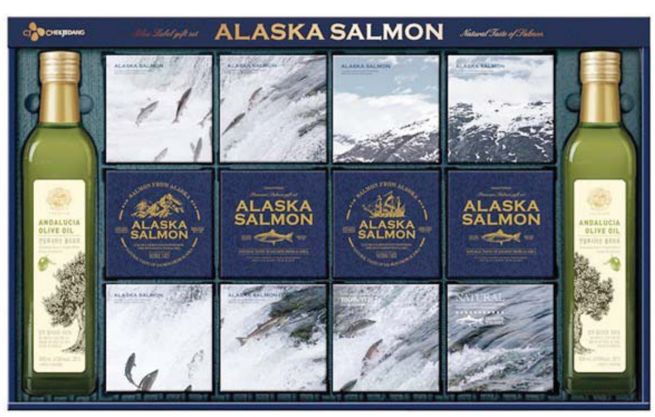


‘속이 꽉찬’ 연어캔으로 건강 전하세요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은 올해 실속형 소비 경향에 맞춰 2만~5만원대 중저가 선물 세트를 대폭 확대했다. 대표 상품은 스팸만 들어 있는 ‘스팸 8호’(3만4800원), 스팸과 연어캔을 복합 구성한 ‘스팸연어 2호’(4만6800원) 등이다.

이와 함께 ‘CJ 알래스카 연어’ 세트 구성을 지난해 28개에서 41개로 늘리고, 매출 목표도 지난 추석보다 40% 성장한 110억원으로 세웠다. 특히 ‘CJ 알래스카 연어’ 선물세트 구성을 지난해 28개에서 41개로 대폭 확대했다. 주력 제품은 연어캔 단독으로만 구성한 ‘CJ건강연어 8호’(4만1800원)와 연어캔과 안달루시아산 올리브유를 함께 담은 프리미엄 세트 ‘CJ건강연어 블루라벨’(7만9800원) 등이 있다.



인기 제품 위주로 구성한 ‘특선세트’도 스팸·고급유·연어캔 등을 기본으로 쓰임새가 다양한 실속형 복합세트로 새롭게 단장했다. 전통적인 명절 선물인 ‘식용유 세트’는 카놀라유·포도씨유·올리브유 등 프리미엄유를 중심으로 세트를 구성했다. ‘건강을 생각한 요리유’와 ‘건강을 생각한 요리 올리고당’을 고급유와 담아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했다.

이밖에 기존 ‘한뿌리’ 병 타입과 파우치 타입을 함께 구성한 ‘한뿌리’ 선물세트도 다양하게 내놨다. 지난해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은 흑삼추출액 100% 제품인 ‘한뿌리 흑삼진액’ 역시 확대 판매할 예정이다.

맛있고 '빵빵한' 선물 와르르

파리바게뜨

롤케이크·카스테라 등 1만~3만원대 베이커리 세트 선봬

파리바게뜨는 설을 맞아 롤케이크·카스테라·파운드케이크를 비롯해 다양한 테마로 1만~3만원대 다양한 베이커리 선물세트를 내놨다.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선물로 청정 제주의 맛을 담은 차별화된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명가명품 제주 천혜향 카스테라'는 제주도 대표 과일인 '천혜향'과 감귤꽃꿀을 넣어 목초란으로 구워냈다. '제주 한라봉&벌꿀 케이크'는 한라봉의 상큼함에 감귤꽃꿀의 촉촉함을 더한 구움 케이크다.

모나카·도라야끼·브라우니 등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인기제품을 조합한 1만~2만원대의 실속형 멀티조합세트도 판매한다. 국산 찹쌀로 만든 모나카와 팥앙금의 도라야끼로 구성된 '정성가득 세트', 미니 바움쿠헨과 스틱 타입의 치즈케이크, 브라우니가 들어있는 '사랑나눔 세트'는 대표적인 실속형 세트다. 호두쿠키와 콩고물이 만나 새롭게 탄생한 콩고물 쿠키와 미니사이즈 쁘띠만주, 스타볼의 3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세가지 소망'도 눈길을 끈다.

전통선물의 베스트 제품인 '화과자 세트'는 당도는 낮추고 원료 본연의 맛에 충실해 선물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정갈하게 빚은 팥·유자·밤·호박·백앙금의 다섯 가지 맛 화과자로 구성된 '화과자명가(소·대)', 화과자와 아몬드플로랑틴·모나카·도라야끼 등 인기상품을 한데 모은 '새해소망선물세트(중·대)', 화과자와 양갱이 함께 들어있는 '소망가득세트' 등이 있다.



파리바게뜨는 명절에 직접 찾아뵙기 어려운 친지나 지인들에게도 편리하게 선물을 전할 수 있도록 해피포인트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톡 선물하기 메뉴를 통해서도 파리바게뜨의 주요 선물세트들을 판매한다.

"우리 한우 저렴하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는 13일까지 한우 114할인몰(www.hanwoo114.co.kr)을 통해 시중가 대비 대폭 할인된 한우선물세트 5종을 판매한다.

온 가족을 위한 '우리한우 선물세트 1호'는 구이용 등심과 국거리·불고기를 각각 600g씩 담았으며, 1+등급 기준으로 22% 할인된 8만5000원에 판매한다.



국거리(600g)와 불고기(1.2kg) 등 제수용품으로만 구성된 '우리한우 선물세트 2호'는 시중가보다 25% 저렴한 6만5000원이다. '우리한우 보신세트 1호'는 사골 4kg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46% 할인된 44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주문도 가능하다. 한우114 회원이 아니더라도 한우기획전 웹사이트(m.hanwoo114.co.kr)에 접속하면 한우세트를 구입할 수 있다.

실속형 복합 세트 111종

대상 청정원

대상(대표 명형섭) 청정원은 가격 부담을 줄인 실속형 복합 세트와 조미김 세트 등 설 선물 111종을 선보였다.

청정원은 카놀라유·홍초·양조간장·올리고당 등이 든 '청정원 13호'(1만5800원), 재래김과 파래김으로 구성된 '재래김 3호'(2만6000원) 등 1만~2만원대의 세트를 대거 내놓았다.

3만~5만원대 세트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대표 제품으로는 '우리팜 세트'(3만3800~5만6800원), 석류·복분자·블루베리 3종 담은 '홍초 1호 세트'(3만2800원) 등이 있다.



국내산 최고급 원료로 만든 '찹쌀발아현미고추장'는 11만5000원, 5년간 자연 숙성시켜 만든 '5년 숙성 양조간장'는 9만1000원에 선보인다.

대상웰라이프는 프리미엄 홍삼으로 구성한 '홍삼 원기충전'(7만9000원), 6년근 홍삼농축액과 식물혼합추출물을 함유한 '홍삼기력골드 프리미엄'(4만5000원) 등 홍삼을 중심으로 한 선물세트를 내놨다.

소중한 분께 친환경 명품 어떠세요

풀무원

풀무원(대표 남승우)의 친환경 식품 기업 올가홀푸드가 '친환경'을 주제로 한 설 선물 170여 가지를 선보였다.

대표 제품으로는 ▲친환경 저탄소 인증 사과세트(9만5000원) ▲항생제 없이 키운 유기 Fresh 산청 한우세트(58만원) ▲어획·가공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굴비 세트(20만원)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고품질 버섯 세트(15만9000원) 등이 있다. 건강을 생각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친환경 원재료로 만든 올가 PB 상품인 참기름 세트·쌍화차 세트·천연조미료 세트 등 가공식품으로 구성된 실속 선물도 준비했다.

가격은 1만원대부터 최대 80만원까지 다양하며, 18일까지 올가 전국 매장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71년 전통 '백화수복'… "오래 살며 복 누리세요"

롯데주류

롯데주류는 설을 맞아 명절 선물용으로 대한민국 대표 차례주 '백화수복'을 비롯해 고급 수제 청주 '설화' 등을 선보였다.

71년 전통의 '백화수복'은 '오래 살면서 길이 복을 누리라'는 뜻을 담은 우리 청주다. 국산 쌀을 100% 원료로 하고 저온 발효공법과 숙성방법으로 만들어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깊은 향과 풍부한 맛으로 차게 마셔도 좋고 따뜻하게 데워 마셔도 좋아 제사 또는 명절 선물용으로 안성맞춤이다.

'설화'는 최고 품질의 쌀을 52%나 깎아내고 특수효모로 장기간 저온 발효시켜 청주 특유의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 있는 술이다. 쌀을 깎는 도정과정에서부터 발효·숙성·저장 등 모든 제조공정을 수작업으로 해 한정수량 판매한다.

롯데주류는 국내산 왕매실과 순금가루가 들어 있어 건강효능에 특별함까지 더한 '설중매 골드세트'도 선보였다.

감사의 마음 담은 프리미엄 위스키

조니워커·헤이그 클럽·윈저 등 18종 한정판 판매

디아지오코리아

디아지오코리아(대표 조길수)는 소장가치를 높인 품격있는 위스키 선물세트 총 18종 (조니워커 12종·헤이그 클럽 1종·윈저 4종·딤플 1종)을 판매한다.

설 특별 한정판으로는 운과 복을 상징하는 산양(羊) 그림이 새겨진 '조니워커 블루라벨 청양의 해 리미티드 에디션'(27만원·750ml), 특별한 디자인의 '조니워커 골드리저브 리미티드 에디션'(7만3000원·750ml), 황금시대가 열렸던 1930년대를 기념하는 '조니워커 블랙라벨 리미티드 에디션'(4만2500원·750ml) 등이 선보였다.



세계에서 가장 사랑 받는 스카치 위스키 '윈저 17'은 영국 왕실이 인증한 로열 라크나가증류소의 원액으로 제조돼 부드럽고 달콤한 여운을 남긴다. 4만4500원(450ml). 과일과 꽃의 달콤한 향이 어우러진 슈퍼 프리미엄 위스키 '윈저21'은 특유의 달콤함과 부드러운 풍미를 S라인 곡선으로 시각화했다. 9만8000원 (500ml).

‘실용 만점’ 선물로 사랑 UP!

당면·부침가루·카놀라유 세트 등 1만~3만원대 60여 종 출시

오뚜기

오뚜기(대표 이강훈)는 경기불황을 고려해 실용 만점의 아이템으로 구성한 설 선물세트 60여 종을 출시했다.

물엿·당면·부침가루·카놀라유 등을 담은 ‘특선 선물세트’ ▲질 좋은 참깨로 만든 ‘참기름 선물세트’ ▲100% 국내산 돼지고기만 사용한 ‘후레시햄 선물세트’ ▲남태평양 바다의 신선함을 담은 ‘참치 선물세트’ ▲8번 숙성시켜 손으로 늘여 만든 ‘오뚜기 옛날수연소면 선물세트’ ▲그윽한 향과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힐링타임 오뚜기차 선물세트’ ▲미국 판매 1위 비타민 ‘네이처메이드 선물세트’ ▲자연의 건강함을 전하는 ‘네이처바이 건강식품(진생업 홍삼등) 선물세트’ 등 1만~3만원대 실속형과 프리미엄 세트를 적절하게 구성했다.

소비자들이 언제든 내용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오뚜기몰(www.ottogimall.com)에 설날 선물세트 전자 카다로그도 선보였다.

오뚜기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2만원 이하의 중저가 선물세트와 함께 명절에 가장 많이 소비되는 당면·부침가루·양념장 등을 구성한 특선종합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착한 가격에 품격 더한 ‘델몬트 주스’

롯데칠성음료

8000원~1만3000원대 중저가 구성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는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풍성히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음료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국내 주스 브랜드 ‘델몬트’의 인기제품을 8000원대부터 1만3000원대의 부담 없는 중저가로 구성하고 명절 분위기가 나는 포장재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델몬트 병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오렌지·포도·사과 3본입 세트’, 제주감귤 100% 사용한 ‘제주감귤주스 세트’, 프리미엄 오렌지 주스만으로 구성된 ‘오렌지주스 세트’ 등 3종이 준비됐다.

1.5ℓ 페트의 경우 한국의 미가 물씬 풍기는 보석함 느낌을 살려 포장재를 고급스럽게 꾸민 ‘포도·매실·제주감귤 선물세트’와 단아한 고급 보자기 모양의 선물 포장박스에 담긴 오렌지·포도·망고·토마토 주스로 구성된 ‘혼합4본 세트’ 2종이 있다.

이밖에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프리미엄 오렌지·포도·망고 등으로 구성된 ‘델몬트 소병 12본 세트’ 2종도 명절 분위기를 듬뿍 담은 포장재로 만들어졌다.

1982년 이후 30년 넘게 사랑을 받아온 델몬트 주스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조사한 ‘2014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주스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델몬트 주스는 1999년부터 16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지켜 ‘골든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한우·양념갈비 최대 50% 할인

강강술래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설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ml·5팩·15인분)는 3만8800원, 중용량세트(500ml·7팩·14인분) 3만60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세트(12봉) 5만1600원에 판매한다.

한우불고기1호(1.5kg)는 6만원, 한우불고기2호(2.25kg) 8만원, 술래양념1호(16대) 10만원에 판매하며 영광 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3개월 이상 건조해 만든 국내산 보리굴비세트(10마리)는 11만원에 선보인다. 술래실속2호(술래양념8대+한우불고기1.5kg)는 10만원, 한우실속2호(한우양념2대+한우불고기1.5kg) 14만원,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등심 각 0.7kg) 15만원, 한우찜갈비세트1호(2.4kg·냉동)는 19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리시리 샴푸&헤어크림을 선물한다. 샴푸에는 3가지(미네랄·아미노산·후코이단) 영양성분이 들어간 천연다시마엑기스가 100% 배합됐으며, 50여종의 천연성분이 포함된 헤어크림은 트리트먼트·오일·에센스·크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누려라

더페이스샵

활용도 높은 생활용품 납신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의 샴푸와 바디워시를 알차게 담은 종합 선물세트 ‘명품 2호(6만9900원선)’는 ▲리엔 효윤비책 샴푸 ▲엘라스틴 퍼퓸 샴푸 ▲온더바디 퍼퓸 바디워시 등 온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총 21종의 생활용품을 알차게 담아 만족감을 주는 선물세트다. 쇼핑백을 사용하지 않은 고급 상자형 패키지에 꽃 디자인을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세련미를 모두 갖췄다.

‘LG 8호(4만9900원선)’는 ▲한방 샴푸 리엔 ▲엘라스틴 퍼퓸 샴푸 ▲페리오 토탈 세븐 치약 등 총 23종의 프리미엄 생활용품을 총망라한 선물세트다.

또 지난 추석 선물세트 판매 1위(2014년 추석 AC닐슨 조사자료)를 차지한 ‘리엔 1호(2만9900원선)’는 건조한 계절 손상되기 쉬운 모발을 건강하게 가꾸어주는 ‘리엔 자윤비책 샴푸’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리엔 윤고 더 퍼스

‘설화수 자음 2종’ 등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에서 설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설화수의 자음 2종과 진설 2종 세트, 설화수 맨 본윤 2종 세트로 소중한 분께 새해 첫 마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아이템이다.

특히 ‘자음 2종 세트(12만원대)’는 완벽한 보습을 자랑하는 젤 타입의 한방 영양 화장수 ‘자음수’와 피부를 유연하게 가꿔주는 실크 감촉의 ‘자음유액’ 2종이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찾아준다. 함께 증정되는 ‘자음수’ ‘자음유액’ ‘윤조에센스’ ‘자음생크림’ ‘미안피니셔’의 기초 견본 5종을 통해 설화수가 추구하는 한방 고유의 처방을 체험할 수 있다.

헤라는 하루 동안 피부에 필요한 에너지를 매일 충전해 투명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로 회복시켜주는 ‘셀 에센스 기획세트(6만원대)’와 안티에이징 부스팅 스킨과 피부에 유,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중건성용 에멀전이 과다 피지를 흡수해 피부를 가꿔주는 ‘헤라 옴므 럭셔리 2종 기획세트(중건성·7만5000원대)’를 선보였다.

마릴린 먼로·오드리 헵번

애경

애경(대표 고광현)은 가치와 의미를 담아 받고 싶은 종합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애경 설 선물세트를 통해 세계적인 영화배우를 다시 만날 수 있다. ‘마릴린 먼로 컬렉션 설 선물세트’는 사랑 받는 뷰티아이콘 마릴린 먼로의 강렬하고 매혹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담았다.

‘케라시스 오드리 헵번 에디션 설 선물세트’는 풋풋하고 매력적인 전성기 시대의 오드리 헵번 이미지를 그대로 담아 제품의 소장가치를 높였다. ‘케라시스 월드스타 에디션(by. WIT) 설 선물세트’는 국제 비영리조직 WIT(Whatever It Takes)와 협업해 앤 해서웨이·조지클루니 등이 재능기부한 아트워크를 담았다.

화가 반 고흐와 국내 유명작가의 디자인을 담은 명화 컬렉션 설

풍성한 세일 혜택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대표 배정태)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설 맞이 세일'을 진행한다.

9일부터 17일까지 더페이스샵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 고객에게 품목별로 20~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환절기 필수제품인 클렌징 전품목을 비롯해 프리미엄 한방 아이크림인 '환생고 골드 아이크림' '희망고' '퍼퓸씨드' 등 바디 일부품목에 50%의 높은 할인률을 적용했다.

또 행사 기간 중 3만원 이상 구매하면 지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을, 유러피언 안티에이징 라인 '더테라피'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더테라피 3종 스페셜 샘플 키트'를 증정한다.

이 외에 '명한 미인도 더할나위 없는 환생고 골드 아이크림(25㎖·6만원)'을 50% 할인 판매한다. 한방 라인 '명한 미인도'의 최고가 아이크림으로 행사 기간 3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트'를 알차게 담았다.

이 외에 건강한 머릿결을 위한 오가니스트 샴푸세트 '순수 1호(1만3900원선)', 알뜰 선물세트 'LG 1호(9900원선)', 향과 감각적인 용기 디자인이 돋보이는 '메소드 핸드워시 세트'(2만9900원선) 등이 있다.

'명품 향기'를 전하세요

보다 에너지 넘치는 젊은 피부를 선물하고 싶다면 라네즈의 '퍼펙트 리뉴 2종 기획세트(7만2000원대)'를 추천한다. 피부 건조, 칙칙함 등의 초기 노화 징후를 경험하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촉촉하고 건강한 남성 피부를 위한 '액티브 워터 2종 기획 세트(6만원대)'도 준비돼 있다.

남성 피부 컨디션·노화 고민을 간편하게 해결해주는 '아이오페 맨 2종 세트(7만7000원대)'도 함께 출시했다.



추억의 스타가 선물로

선물세트도 선보였다. '명화 컬렉션 설 선물세트'는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적인 작품을 선물세트에 반영해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의 따뜻한 감성과 제품의 실용성을 함께 전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선물세트이다.

이 외에도 '케라시스 나눔 스페셜(by. 김태호 작가) 설 선물세트'는 발달장애 화가인 김태호 작가의 따뜻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돼 의미를 더했다.





스타일·기능성 갖춘 신발 어때?

락포트

20만원 이상 구매시 고급 랩탑 파우치 증정

슈즈 브랜드 락포트(ROCKPORT)는 설 명절에 신발 선물을 권한다.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고급 랩탑 파우치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페미닌한 감성의 '토탈모션 4㎜ 웨지 브랜드 핍토'는 락포트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토탈모션과 아디프린&아디프린플러스 테크놀러지를 적용했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양가죽을 사용해 신었을 때 발을 감싸주는 듯한 피팅감을 자랑하는 제품이다. TPU(열가소성 폴리우레탄) 판을 중창 부분에 사용해 뒤틀림을 방지하고 여행용 캐리어에 많이 쓰이는 ABS소재를 힐 부분에 사용해 뛰어난 내구성과 가벼운 무게를 자랑한다.

또한 벨벳과 같은 부드러운 감촉을 느낄 수 있는 폴리에스테르 안감으로 발의 피로를 덜어 주어 편안한 착화감을 선사한다. 강렬한 레드, 베이직한 블랙, 여성스러운 베이지 3가지 컬러로 출시됐다.



렛지 힐 라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옥스포드 슈즈는 소가죽 소재를 사용해 은은한 컬러와 부드러운 터치감을 살렸다. 컬러풀한 신발 끈으로 포인트 효과를 주었으며, 신발 라인을 따라 올라가는 섬세한 디테일로 포멀한 수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캐주얼 룩에도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렛지 힐 투 윙 옥스포드'는 신발 속에 발수성이 뛰어난 항균성 안감이 장착돼 신발을 건조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밑창에는 '아디프린' 테크놀러지를 장착하여 보행 시 전해지는 충격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쿠셔닝을 증대 시켰다.

TPU 소재의 경량 풋베드와 발의 압력을 줄여주는 견고한 쿠셔닝을 제공해 각기 다른 발에도 최적화된 핏을 구현하며 EVA(가볍고 충격흡수가 우수한 친환경 고분자 물질)와 고무소재를 아웃솔로 사용하여 쿠셔닝 효과와 충격을 흡수한다.

다양한 지면에서 내구성 있고 안정적인 보행을 제공한다. 캐주얼하면서 스타일리시한 옥스퍼드화를 찾는 남성들에게 추천. 브라운, 블랙, 다크그레이 3가지 컬러로 출시됐다.

상품권부터 구두·핸드백까지

금강제화

남성은 '리갈'… 여성은 '글램' 핸드백



금강제화(대표 김경덕)는 스타일에 실속을 더한 설 선물을 내놨다.

금강상품권은 매년 명절이면 인기를 끄는 선물이다. 특히 구두·캐쥬얼화를 비롯해 핸드백·백팩·지갑·골프 웨어·아웃도어 웨어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다양한 권 종으로 구성됐으며 전국 금강제화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남성들을 위한 선물로는 정통 신사화 '리갈'이 제안됐다. 고급 수제화에 사용되는 굿이어 웰트(Goodyear-Welted) 제법으로 만들어져 견고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바닥에 코르크 소재를 사용해 장시간 신어도 피로감이 적고 쾌적한 느낌을 준다. 가격은 19만8000원.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남성을 위한 선물로는 '헤리티지'가 추천됐다. 최고급 송아지 가죽과 최상위 수제화 제법으로 제작돼 착화감이 뛰어나다. 가격은 35만원부터 79만9000원.

여성을 위한 선물로는 브루노말리의 봄·여름 시즌 신상품 '글램' 핸드백이 제격이다. 이태리 오리진을 살린 볼로냐 레더로 제작돼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돋보일 뿐 아니라 취향에 따라 숄더·토트·백팩까지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가격은 65만원.

여성 슈즈를 선물한다면 '브루노말리 비안코'가 좋다. 9㎝, 10㎝ 두 가지 높이의 힐과 날렵한 느낌의 포인트 토(Toe)가 우아한 실루엣과 엣지 있는 스타일을 완성시켜준다. 가격은 27만8000원.

젊은 층을 위한 선물로는 '브루노말리 스니커즈(25만8000원)'와 위트 넘치는 패턴과 화사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랜드로바 슬립온(14만8000~16만8000원)'을, 중장년층에게는 초경량 컴포트화 '랜드로바 네이처(17만8000원)'가 추천됐다.

엄마에게 특별한 설 연휴 선물

머스테브

의미있고 독특한 설 선물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타임엔코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메이크업 전문 화장품 브랜드 '머스테브'와 연희동에 위치한 토털 뷰티 솔루션 전문 매장 '더 타임 테라피'는 설 연휴를 위해 특별히 기획한 퀸스타임 세트(더 타임 테라피 4종 기초) 구매 시 전문 아티스트에게 메이크업을 받을 수 있고 유명 스타들이 입었던 드레스를 입고 딸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퀸스타임 세트는 천연 식물성 유산균 LTA와 흑효모 발효 추출물이 함유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 받은 미백·주름 개선 제품이다.



이벤트는 28일까지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머스테브(http://www.mustaev.co.kr) 혹은 더 타임 테라피(http://www.thetimetherapy.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070-8813-7546.

전시장 가고 선물 받고

기아차, 내방 고객 중 추첨 통해 안마의자 등 증정

기아자동차㈜가 전국 기아차 전시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는 설 맞이 전시장 방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부모님, 아내, 자녀를 위한 각각의 명절 맞춤형 경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온 가족이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는 2월 한 달 동안 전시장을 찾은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고급 안마의자(1명) ▲또봇 장난감(100명)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215명) 등 총 316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특히 고객 전원에게 3000원 상당의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증정해 설 명절 및 겨울에 어울리는 컵떡국, 캔커피 등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기아차 홈페이지(http://www.kia.com)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후 전시장을 방문하거나, 또는 전시장을 방문해 직원에게 이벤트 응모를 신청하면 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2015년 설을 맞아 고객과 함께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전시장 방문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기아차는 명절 또는 계절 특성과 연관된 색다른 이벤트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기자



더 고급스러워진 프리미엄 미니밴

도요타 '뉴 시에나' 출시… 각종 첨단 편의·안전사양 추가

국내 고급 미니밴 시장의 개척자 도요타 시에나가 한층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세련된 외관은 물론 프리미엄급 인테리어와 편의사양을 갖춰 진정한 '퍼스트 클래스 리무진'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다. 2011년 11월에 국내에 처음 소개된 시에나는 '오토만 시트로 유명한 쾌적한 실내공간', '3열 파워폴딩 등 다양한 편의장치', '동급 최고의 안전성능' 등의 장점이 부각되며 3년간 꾸준한 판매를 기록, 국내에 '고급 미니밴 시장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모델이다.

8일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전국 도요타 전시장을 통해 3세대 시에나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2015 뉴 시에나'(사진)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15 뉴 시에나는 2륜인 시에나 3.5 리미티드와 4륜인 시에나 3.5 리미티드 AWD 두 가지다. 모두 미국 내 판매되는 최고급 사양의 모델이다. 특히 4륜 모델은 동급 고급 미니밴에서는 시에나가 유일하다.

가격은 각각 5270만원과 5610만원이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올해 개별소비세 인하분이 반영된 가격이다. 2015 뉴 시에나에서 단연 돋보이는 부분은 한층 더 고급스러워진 인테리어와 편의·안전사양이다.

센터페시아를 포함한 운전석의 대시보드는 이전 모델대비 풀모델체인지 수준으로 완전히 변경됐다.

차량의 다양한 기능과 정보를 표시하는 4.2인치 멀티 인포메이션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 LCD) 디스플레이,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적용됐다. 에어컨과 변속기, 멀티미디어 컨트롤 등의 버튼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도어핸들과 대시보드 곳곳에 새틴크롬과 스티치를 가미한 소프트패드를 적용하고 통기성이 향상된 가죽시트로 실내소재를 더욱 고급화 했다.

안전사양에 있어서는 동급 최고를 지향한다는 방향성을 그대로 반영했다. 기존 7개에서 동반석 시트쿠션 에어백까지 추가한 총 8개의 SRS 에어백을 탑재(동급 최대), 충돌사고시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김종훈기자 fun@metroseoul.co.kr

푸조 SUV '3008 LUX팩' 출시

제논 라이트·디렉셔널 커렉션 사이트·18인치 휠 장착

프랑스 감성과 기술이 담긴 푸조(PEUGEOT)의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www.epeugeot.co.kr)는 '푸조 3008 Lux Pack' 모델을 국내에 출시하고, 기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차는 악티브(Active)와 알뤼르(Allure)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된다. 악티브에는 제논 라이트와 디렉셔널 커렉션 사이트를 추가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디렉셔널 커렉션 사이트(Directional Correction Sight)는 운전자의 안전한 주행을 돕기 위해 라이트를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다. 알뤼르에는 악티브 사양외 18인치 휠이 추가돼 접지력을 상승시켜 더욱 부드러운 코너링을 구현한다. 값은 각각 3990만원과 4390만원이다.

출시 기념 2월 한달간 프로모션도 한다. 무이자 금융 프로모션과 함께 300만원상당의 주유권이 제공된다. 300만원 상당의 주유비는 연비가 좋은 푸조 3008 악티브 모델(연비-18.1km/ℓ)의 경우 연간 평균 주행거리 1만5000km (에너지관리공단 참고)를 기준으로 3년치 주유비에 해당된다. 프로모션은 전국 20개의 푸조 공식 전시장에서 동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면 된다.



푸조 3008은 볼륨감 있는 디자인, 뛰어난 공간활용도, 안정적인 드라이빙 퍼포먼스, 높은 연비효율 등 세계적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이다. 특히 1.6 e-HDi 엔진이 장착된 푸조 3008 악티브 모델은 오프로드에 강한 그립컨트롤 기능이 탑재되어 평지, 스노우, 진흙, 샌드, ESP 오프(ESP Off) 총 5가지 주행 모드를 도로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김종훈기자

쉐보레, 전국 대리점 워크숍서 100여명 시상

'새로운 도약! 뉴 챕터!' 주제 하에 목표 달성 결의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Chevrolet)가 지난 5일 충남 대전 ICC호텔에서 한국지엠 세르지오 호샤(Sergio Rocha) 사장을 비롯, 전국 쉐보레 대리점 대표와 딜러 등 4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쉐보레 전국 대리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새로운 도약! 뉴 챕터(New Chapter)!'라는 주제로 지난해 한국지엠과 딜러, 대리점이 달성한 성과를 축하하고, 2015년을 성공적인 한해로 만들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한국지엠이 내수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업일선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딜러, 대리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지엠은 이들과의 강화된 파트너십, 경쟁력있는 제품 출시, 업계 최고 수준의 고객 케어를 통해 올해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며, 한국지엠의 새로운 챕터를 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뛰어난 영업실적과 고객관리로 내수판매 신장에 공헌한 100여명의 우수 딜러와 대리점 대표들을 시상하는 한편, 올해 내수 시장점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전국 쉐보레 대리점 대표 등이 2015년 목표 달성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현대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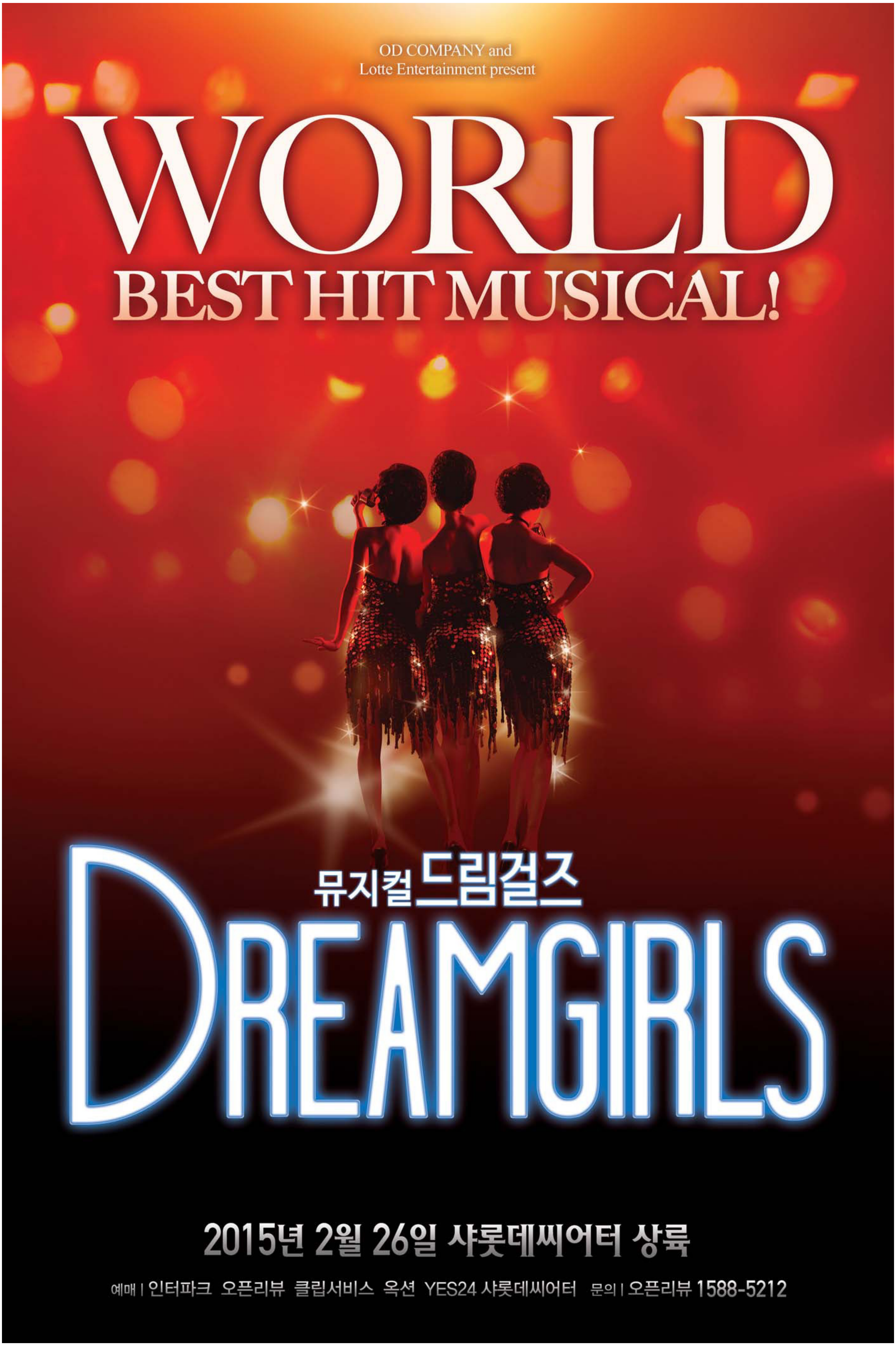
유율 성장과 마케팅 인사이트 영업 만족지수 1위 달성 등 2015년의 핵심 사업과제도 함께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로운 도약,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 강연 외에도 한국지엠 영업·AS·마케팅부문 내 임원들이 진행하는 토크쇼 방식의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회사와 딜러, 대리점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됐다.

올해 핵심 사업목표가 쓰여진 책자에 개개인의 친필 사인을 기입, 이를 대형 책꽂이 모형에 꽂는 퍼포먼스를 통해 행사에 참여한 이들의 목표 달성 의지를 고취시키기도 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 한해 동안 쉐보레 제품의 뛰어난 경쟁력은 물론, 업계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와 혁신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15만4381대를 판매해 2002년 회사 출범 이후 연간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김종훈기자


OD COMPANY and
Lotte Entertainment present
WORLD
BEST HIT MUSICAL!
뮤지컬 드림걸즈
DREAMGIRLS
2015년 2월 26일 샤롯데씨어터 상륙
예매 | 인터파크 오픈리뷰 클립서비스 옥션 YES24 샤롯데씨어터 문의 | 오픈리뷰 1588-5212

센 언니 콘셉트 우리 자부심

걸그룹 최초 트랩 힙합 도전…강인한 느낌 표현
작사·작곡부터 앨범 콘셉트까지 멤버 전원 참여

미니 6집 '미쳐'로 컴백한 **포미닛**



5인조 걸그룹 포미닛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2009년 데뷔 이래 가장 '센' 느낌의 음악을 담은 미니 6집 '미쳐'로 컴백한 것. 포미닛은 데뷔 때부터 여전사 이미지를 추구해 왔다. 하지만 2013년 '이름이 뭐예요?'를 시작으로 '물 좋아?' '오늘 뭐해' 등의 노래를 통해 깜찍하고 발랄한 의외의 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포미닛은 이번 앨범에서 지난 2년 동안 쌓아왔던 에너지를 한 번에 폭발시킬 예정이다.

◆ 초심으로 돌아가다

타이틀곡 '미쳐'는 그동안 댄스·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던 포미닛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트랩 힙합 장르다. 최근 몇 년간 힙합신을 휩쓸었던 트랩 비트를 시도하는 걸그룹은 이들이 처음이다.

"데뷔 이래 멤버들이 참여를 가장 많이 한 앨범이에요. 부담 되지만 설렘도 커요. 예전에 저희들이 보여줬던 강한 여전사 이미지로 돌아가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가윤)

이들은 인터뷰 내내 모두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팀 결성 초기부터 사장님이 센 이미지나 무서운 언니 콘셉트를 원했어요. 멤버 한 명을 반삭 시킬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재작년엔 대중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저희의 색깔을 잠시 내려두고 말랑말랑한 모습을 보여드렸죠. 이번 앨범을 통해 포미닛이 '쎈 언니'로 자리를 굳히길 원해요." (현아)

데뷔 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막내 소현이 "지금이 더 세다"고 답하자 가윤은 "어릴 땐 그저 파워풀하기만 했다면 지금은 노련미가 더해졌다"며 "그 땐 운동화였다면 지금은 하이힐 신고 춤을 춘다는 것도 큰 차이"라고 덧붙였다. 지윤 역시 "예전엔 잘 몰라서 모든 동작에 힘을 실었는데 지금은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멤버들은 막내 소현이 말하면 그저 귀엽다는 듯이 바라봤다.

"올해 목표가 '여자가 되자'예요. 뭘 해도 다들 귀엽다고만 하니까, 저한텐 칭찬이어도 팀에겐 마이너스 요소라 생각하거든요." (소현)

◆ 예쁜 것도 좋지만…

이들은 현재 활동하는 걸그룹 중 1990년대 디바·베이비복스 등 '강렬한 여전사' 콘셉트를 잇는 유일한 팀이다. 걸그룹이기에 앞서 여자로서 예뻐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터.

"그런 고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쟤네 진짜 미쳤네'라는 소리를 들어볼 정도로 제대로 하고 싶어요. 안 예뻐 보인다고 속상하거나 하진 않아요. 오히려 제게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알아서 기뻤어요." (현아)

"걸그룹이라고 굳이 예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예쁜 모습은 무대 위가 아니어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곡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죠." (지현)

포미닛은 이번 앨범이 자신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 같다고 말했다.

"강한 이미지는 저희에게 큰 자부심이에요. 예쁘고 섹시한 것도 좋지만 최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그룹이 많이 없으니까요. 이 분야에서 최고가 아닌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그룹이 되길 바라요." (소현)

"디바, 베이비복스 선배님들의 계보를 이을 수 있다면 영광이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포미닛이 될 거예요. 이번 노래 '미쳐'로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한 번쯤 미쳐줬으면 해요." (현아)

무대 위에서 내려왔을 때도 여전사 같은 모습일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소현은 "그냥 동네 언니들"이라고 말했다.

"평상시와 무대 위는 정말 달라요. 특히 지윤언니는 평소에 메이크업도 안하고 다니거든요. 매일 자연스러운 모습만 보다 오늘 화장한 걸 보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웃음)." (소현)

"평소에도 그러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일상에선 웃기는 언니지만 무대에선 카리스마를 보여주려고 하죠." (지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star bag

중국 팬과 뜨거운 만남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중국 베이징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8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박유천은 팬미팅을 통해 "계속해서 응원해준 팬들에게 좋은 음악, 좋은 연기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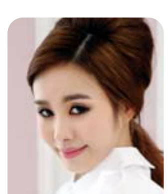
경찰관으로 스크린 컴백



배우 **김재욱**이 영화 '다른 길이 있다' 출연을 확정했다.

'다른 길이 있다'는 현실의 무게감에 짓눌려 힘겹게 살아가는 남녀가 춘천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김재욱은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경찰관 수완 역을 맡았다.

신신애·현숙 노래 리메이크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개그우먼 **천수정**이 이달 중 새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쇼맨그르부가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리메이크 앨범에서 천수정은 신신애의 '세상은 요지경'과 현숙의 '좋아좋아' 등을 다시 부른다.

쇼핑호스트와 결혼식



배우 **조재윤**이 품절남 대열에 합류했다. 조재윤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드레스 가든에서 9세 연하의 쇼핑 호스트 조은애와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9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친하게 지내다 지난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사랑에
빠진
나는
호구
입니다
오늘 밤 11시
tvN
첫 방송
매주
[월-화]
방송
tvN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
유이 + 최우식 + 임슬옹 + 이수경 + 기획 | tvN + 제작 | MI media + 연출 | 표민수 + 박찬율 + 극본 | 윤난중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갓 헬프 더 걸

찬란하게 빛났던 청춘의 송가





사랑스럽고 귀여운 빈티지 감성으로 담은 성장담

영화 '갓 헬프 더 걸'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출신 밴드 벨 앤 세바스찬의 리더인 스튜어트 머독이 2009년에 발표한 동명의 프로젝트 음반에서 시작됐다. 음반을 만들면서 구상한 시나리오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인 킥스타터를 통해 모은 제작비로 마침내 한 편의 영화가 됐다. '벨 앤 세바스찬'이 대학에서 들은 뮤직 비즈니스 수업의 프로젝트로 시작돼 진짜 밴드가 된 것처럼 '갓 헬프 더 걸' 또한 우연 같은 필연으로 완성됐다.

영화의 주인공인 이브(에밀리 브라우닝)와 제임스(올리 알렉산더), 캐시(한나 머레이)는 몸은 다 자랐지만 여전히 어른이 되지 못한 벨 앤 세바스찬 노래에 나올 법한 인물들이다. 거식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지만 자유를 꿈꾸는 이브, 노래를 만들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캐시, 그리고 밴드를 꾸려 멋진 팝 음반을 만들고 싶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제임스가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밴드를 만들어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줄거리다.

초창기 벨 앤 세바스찬의 음악처럼 '갓 헬프 더 걸'도 아마추어리즘이 물씬 묻어난다. 빈티지한 의상과 음악, 엉뚱하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그리고 글래스고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데 담은 영화는 한 마디로 '힙(세련되고 현대적이라는 뜻)'하다. 세 주연 배우가 직접 부르고 추는 노래와 춤은 영화를 더욱 사랑스럽고 귀엽게 만든다. 하지만 영화의 감성적인 외피에 비해 내용적인 면은 다소 빈약하다. 몇 편의 뮤직비디오를 묶어 놓은 듯한 느낌도 든다.

각자 나름의 부족함을 지닌 소년소녀들이 만든 밴드는 마침내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다. 그렇게 청춘의 여름은 찬란한 빛과 함께 지나간다. 누군가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얻을 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찬란한 순간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임을 느끼며 자신만의 세상으로 다시 발길을 옮긴다.

마냥 사랑스럽기만 하던 영화는 그렇게 현실의 한 부분을 건드리며 막을 내린다. 그 엔딩이 아름다운 멜로디 속에서도 세상에 대한 냉소를 포기하지 않던 벨 앤 세바스찬의 음악을 고스란히 닮았다. 15세 이상 관람가. 2월 12일 개봉.

"우리 결혼했어요"

윤상현·메이비 8일 결혼

또 하나의 배우·가수 부부가 탄생했다.

배우 윤상현과 가수 겸 작사가 메이비는 8일 오후 4시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윤상현과 메이비는 지난해 4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7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왔다. 11월 열애 사실을 인정한데 이어 곧바로 결혼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당초 두 사람의 결혼식은 많은 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결혼식으로 치러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가 가족들이 조용히 식을 치르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와 사전 인사와 기자회견, 하객 포토월 등의 행사 없이 모든 예식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윤상현과 메이비는 결혼을 기념하는 웨딩송 '봉숭아 물들다'를 디지털 싱글로 9일 발표한다. 메이비가 작사에 참여한 노래는 봉숭아 꽃잎 물을 물이듯 서로에게 물들어 간다는 내용으로 사랑을 싹 틔우는 연인의 풋풋하고 설레는 감정을 표현했다. 음원 수익금 일부는 소외 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국제시장' 무서운 뒷심

1300만 돌파…한국영화 역대 흥행 2위

영화 '국제시장'이 1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영화 역대 흥행 2위에 올랐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국제시장'은 개봉 53일째인 7일까지 누적 관객수 1302만3664명을 기록하며 '괴물'(1301만)을 제치고 역대 한국영화 흥행 2위에 올랐다.

개봉 8주차 주말에 접어든 '국제시장'은 여전히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머물며 무서운 흥행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일일 박스오피스 1위에 다시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재 '국제시장'은 역대 흥행 순위에서 '명량'(1761만)과 '아바타'(1362만)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설 연휴까지 뒷심을 발휘한다면 '아바타'도 충분히 제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시장'은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황정민, 김윤진, 오달수 등이 출연했으며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이 연출했다. /장병호기자



온라인 핫 이슈

임영규, 연이은 난동에 결국 구속



탤런트 임영규(사진)가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임영규를 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임영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안경을 깨트리기도 했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청담동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의 소란을 피운 혐의로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장병호기자

지현우 '앵그리맘'서 착한남자 변신



배우 지현우(사진)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남자로 변신한다.

지현우는 MBC 새 수목극 '앵그리맘'에서 박노아 역을 맡았다. 명성고 신임 국어 교사로,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고 믿는 순수한 남자인 그는 사람 말을 잘 믿기 때문에 호구 교사로 불린다.

그는 정체가 심상치 않은 전학생 조방울(김희선)을 만나면서 비리로 얼룩진 학교 재단의 비밀과 맞서 싸운다.

'앵그리맘'은 날라리였던 엄마가 다시 고등학생이 돼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통쾌활극이다. 2014 MBC 극본공모 미니시리즈 부문 우수상 작품이다. '킬미힐미' 후속작으로 내달 중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이 8일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와의 경기에서 후반 21분 헤딩으로 극적인 동점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AP 연합뉴스

기성용 체력 한계 어디까지

소속팀 복귀 선덜랜드전 풀타임 소화…후반 극적 헤딩 동점골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기성용(26·스완지시티)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즌 4번째 골을 터뜨렸다.

기성용은 8일(한국시간) 웨일스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선덜랜드와의 2014-2015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21분 1-1 동점을 만드는 골을 꽂았다.

지난해 12월 21일 헐시티와의 17라운드 이후 7경기 만에 나온 시즌 4호골이다. 공격포인트는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와의 20라운드에서 기록한 도움 하나를 포함해 5개째다.

스완지시티는 기성용의 활약 속에 선덜랜드와 1-1로 무승부를 거둬 최근 정규리그에서 1승1무를 기록했다. 순위는 9위(승점 34)를 지켰다.

기성용은 지난달 열린 아시안컵에서 맹활약한 뒤 지난 4일 출국, 이날 소속팀에서 첫 경기에 나섰다.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주장을 맡은 그는 전 경기에 선발 출전해 대부분 풀타임을 소화하며 체력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영국으로 복귀하자마자 선발로 경기에 나섰고 복귀전부터 팀의 패배를 막는 득점포를 가동했다. 특히 다른 선수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며 풀타임을 소화해 강철 체력을 과시했다.

기성용은 이날 0-0으로 맞서던 전반 40분 존조 셸비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프리킥을 재치있게 오른발로 방향을 틀어 공을 골대 안에 넣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아쉬움을 남겼다.

팀이 뒤진 채 후반전을 맞이하자 기성용은 공격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후반 21분 카일 노턴이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자 멋진 다이빙 헤딩으로 마무리해 동점골을 뽑아냈다.

경기 후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활발한 몸놀림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기성용에게 평점 7점을 부여했다.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으로, 도움을 올린 노턴이 최고 평점인 8점을 받았다.

스완지시티 역시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성용이 자신이 뛰었던 선덜랜드를 상대로 보기 드문 헤딩골을 터트려 팀을 도왔다"며 "아시안컵에서 전 경기를 소화하며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지만 이날 풀타임을 소화했고, 시즌 4호골을 꽂았다"고 칭찬했다.

한편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볼턴을 벗어나 크리스털 팰리스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이청용은 아시안컵에서 당한 부상의 여파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레스터시티를 1-0으로 제압했다.

QPR의 윤석영은 사우샘프턴과의 홈경기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징계 복귀 호날두 헛발질만

'마드리드 더비' 레알 0-4 충격패

스페인 프로축구 '마드리드 더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8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비센테 칼데론에서 열린 2014-2015 프리메라리가 2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0-4로 패했다.

이로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의 6차례 대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나갔다. 올 시즌 스페인 슈퍼컵, 코파델레이, 프리메라리가에서 2차례씩 맞대결한 결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4승2무로 레알 마드리드에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끝내고 돌아왔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주전 공백이 컸다. 5일 세비야와의 프리메라리가 경기에서 하메스 로드리게스, 세르히오 라모스가 다쳐 이날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여기에 페페와 루카 모드리치도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고, 마르셀루 역시 출장 정지 상태였다.

징계 이후 복귀한 골잡이 호날두는 풀타임 출전했지만 단 한 차례 슈팅에만 그치면서 이름값을 제대로 못했다. /김민준기자



레알 마드리드의 골잡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8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경기에서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표정을 지으며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있다. /AP 연합뉴스

오승환 첫 불펜피칭 '한신 전설' 극찬

에나쓰 코치 "팔·하체 등 선동열 보는 듯"



오승환(33·한신 타이거스·사진)의 첫 불펜피칭에 한신의 전설적인 투수 에나쓰 유타카(67) 코치와 라이벌 요미우리 자이언츠 전력분석원이 "오승환은 훌륭한 투수"라며 극찬했다.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7일 "오승환이 6일 일본 오키나와 기노자구장에서 첫 불펜피칭을 했다"고 전했다. 하프피칭 16개로 몸을 푼 오승환은 불펜피칭으로 31개의 공을 던졌다.

한신에서 프로 선수생활을 시작해 일본프로야구 통산 206승 163세이브를 기록한 전설적인 투수 에나쓰 코치는 "팔 동작과 하체 사용법이 선동열과 비슷하다"며 오승환의 은사이기도 한 '국보투수' 선동열 전 KIA 타이거즈 감독과 오승환을 비교했다.

"훌륭한 투구"라고 오승환을 칭찬한 에나쓰 코치는 오승환과 10분 정도 대화하며 "지난해 봄에는 슬라이더가 좋았는데 여름에 팔 동작이 바뀌었다. 맞을 때 보면 몸이 앞서 있는데 의욕이 지나쳐서 투구할 때 몸이 빨리 나오면 안 된다"고 기술적인 조언도 했다.

오승환은 "첫 불펜피칭은 구위보다 균형잡힌 투구 자세를 더 신경썼다"며 "에나쓰 코치도 '개막에 맞춰 천천히 만들어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신 라이벌 요미우리의 전력분석원도 오승환의 투구를 유심히 지켜봤다. 미사와 요미우리 전력분석원은 "첫 불펜피칭임에도 공에 힘이 넘쳤다"고 평가하며 "지난해 클라이맥스시리즈 때 오승환에 막혔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다루 전력분석원은 "제구와 몸의 균형이 좋았다"며 "직구가 안정되고 변화구도 좋은 최정상급 투수"라고 극찬했다. /김민준기자

마라도나, 전북 훈련장 깜짝 방문

최강희 감독과 찰칵…"올해 한국 찾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챔피언' 전북 현대의 훈련장에 아르헨티나 축구영웅 디에고 마라도나(55)가 '깜짝' 방문했다.

전북 구단은 8일 "마라도나가 전날 팀의 전지훈련 캠프를 방문해 최강희 감독과 만나 훈련 성과 등을 물었다"며 "이번 방문은 팀의 전지훈련을 진행하는 에이전트와 두바이 문화관광국장이 만든 이벤트"라고 밝혔다.

마라도나는 2012년부터 UAE 두바이의 '스포츠 명예대사'로 활동하고 있고, 전북이 두바이에서 전지훈련을 치르면서 방문하게 됐다.



전북 현대 훈련장을 찾은 마라도나가 최강희 감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라도나는 최 감독에게 "2015년에도 행운이 함께 해 우승하기를 바란다"며 "올해 전북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최 감독은 "두바이가 날씨와 훈련 제반시설 등이 아주 훌륭하다. 전지훈련을 잘 마무리 하고 있다"며 답례로 선수단 전체의 사인이 담긴 등번호 10번의 유니폼을 선물했다.

훈련을 끝낸 선수들은 마라도나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민준기자

이완구 – 재벌 – 언론



강세준의 마켓포인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슈퍼갑' 언론관이 청문회 정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근거는 경제력과 국방력만이 아니죠. 언론자유는 열린 사회, 즉 평소 다소 시끄럽지만 위기에 강한 공동체를 담보하는 원천입니다. 권력의 언론통제 목적은 딱 하나,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이지요. 핵심 정보에서 국민을 소외시키고 '물 먹이려는' 속셈입니다. 오도된 정보에 길들여진 국민이 경쟁력을 가질 리 만무하고 권력 입장에서는 다스리기도 쉽습니다. 북한처럼 말이죠.

어느 사회에서나 권력층은 언론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통제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언론매체도 기업으로서 생존의 문제가 있기에 대부분 적당히 타협하거나 굴복합니다. 이른바 '정경언(정치–경제–언론)' 유착입니다. 1987년 이후 좀 나아지긴 했지만 우리의 언론환경은 여전히 일제시대 이후 지속된 정경언 유착구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고리는 재벌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의 위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정치권력의 언론통제 수단도 결국은 돈입니다. 이른바 '협찬'이라는 무기로 재벌은 대한민국 언론을 사실상 완벽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대차· SK· LG 같은 재벌 그룹 홍보실 예산의 80% 이상은 광고가 아니라 협찬용으로 운영됩니다. 경제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니 정가도 없습니다. 맘에 들면 퍼주고 삐딱하면 안줍니다. 신문의 경우 한국ABC협회라는 발행부수 측정기구까지 있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필자가 수집한 각 언론사 매출자료 중 일부를 소개하면 기가 막힐 겁니다. 2013년 기준 발행부수 2만부 안팎인 중앙일간지 A사의 경우 그해 현대기아차그룹에서 수주한 매출이 총 8억4977만원(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현대제철 등 계열사는 별도)입니다. 2만부의 광고효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액수죠. 이 신문의 광고단가는 가장 비싼 '빽면(신문의 가장 뒷면)' 기준 1000만원 정도입니다. 현대차그룹은 A사에 연간 85번 빽면광고를 실은 셈인 것입니다. A사보다 상위 매체인 일간지만 대략 30개 정도 있으니, 현대차그룹의 협찬 총액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봐야죠.

현실이 이러하니 재벌그룹사로부터 협찬의 은혜를 받지못하면 어느 매체든 버티기 힘듭니다. 더구나 이들은 한국광고주협회라는 전경련 회원 단체를 이용해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매체를 왕따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벌은 권력에 약합니다. 정치권력의 시혜와 묵인 하에 몸집을 키워온 터라 그만큼 약점이 많기 때문이겠지요. 만약 권력층이 어떤 매체에 협조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재벌에 보내면 그 매체는 불신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언론에 큰소리를 뻥뻥칠 수 있는 것도 이런 먹이사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비즈니스나 투자를 하면서 핵심정보를 주류 언론에 의존했다간 낭패보기 쉽상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아예 보도도 되지 않고 공개된 정보는 살짝 왜곡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스스로 실상을 탐구하고 진실을 찾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편집국장

날씨 2/9月

일출시각 07:29
일몰시각 18:04
·자료제공 : Kweather



뇌졸중 예방에는 운동이 보약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아침 활동을 피하고 운동을 시작하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나이 많아서 소개팅 '뚝'… 애정 운 궁금
결혼 늦지만 재산 쌓여… 자신감 가져라

밀가루인형 여자 79년 5월 24일 음력 사 시생

Q 안녕 하세요. 메트로 신문 구독자입니다. 사주속으로에 애정 운과 결혼 운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만나는 사람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소개팅도 힘든 상태네요. 79년생 여자 음력 5월 24일 사시 생입니다. 저에게 올해 애정 운과 결혼 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인연을 어떤 사람과 어떻게 만나는지도 궁금 하구요. 상담 감사합니다.

A 결혼은 일찍 하거나 제때 해서 안 좋은 것 보다 좀 늦게 해도 삶의 경로가 원만하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배우자 인연이 있습니다. 사주로 설명을 해본다면 여자기준으로 관성(官星:나를 극하는 오행)은 남자를 의미하며 배우자와 인연이 되어 결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사주8자에서 년 월일 시(年月日時)순으로 들어온다고 보는데 귀하처럼 관성이 일지(日支:생일)에 있으면 늦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걱정은 되겠으나 시지(時支:태어난 시간)에 있는 것보다는 빠른 셈입니다. 또한 결혼을 하는 때는 세운(매년 들어오는 운)과 대운(10년마다 들어오는 운)에 따라 배우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관성이 묶여 있다가 풀리는 경우 결혼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귀하의 경우는 2018년도로 봅니다. 물론 결혼 운을 보는 것이 그리 간단 한 것은 아닙니다. 관성이 아주 없거나 흉살(凶殺)을 맞고 있어서 배우자 인연이 안 되는 경우는 세운이나 대운에서 합(合)을 이룰 때나 일지가 관성과 합(合)을 이뤄야 결혼을 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이므로 각자팔자에 결혼조건이 채워질 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상담을 하거나 결혼중매소를 찾기도 하는 것이겠지요. 음력 9월에 만나는 사람을 잘 눈여겨보시는데 잘 이어져 3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늦어지지만 '구름에 가린 태양'의 형상으로 뒤늦게 무궁한 지혜가 생기어 현명하고 재산이 늘어나는 사주구조이니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자신감을 갖으십시오. 다만 라망(羅網:그물은 침)이 있어 지나치면 실패가 따르므로 어느 분야든 기술자를 만나면 이 또한 극복되면서 편안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6	4	2			5			
	5	1	2					
			1	8				
				2	7	3	5	
		3				4		
	7	5	3	9				
				1	3			
					2	6	9	
			8			5	3	4

		8		1				6
	5							
	7				3	5		
					9		8	7
2			4		7			5
5	8		1					
		3	5				9	
							2	
1				2		4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6	4	2	7	3	5	9	1	8
8	5	1	2	6	9	7	4	3
3	9	7	1	8	4	2	6	5
1	8	6	4	2	7	3	5	9
6	2	3	9	5	1	4	8	7
4	7	5	3	9	8	1	2	6
5	6	4	9	1	3	8	7	2
7	3	8	5	4	2	6	9	1
2	1	9	8	7	6	5	3	4

4	3	8	9	1	5	2	7	6
9	5	1	6	7	2	8	3	4
6	7	2	8	4	3	5	1	9
3	6	4	2	5	9	1	8	7
2	1	9	4	8	7	3	6	5
5	8	7	1	3	6	9	4	2
8	2	3	5	6	4	7	9	1
7	4	5	3	9	1	6	2	8
1	9	6	7	2	8	4	5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신점[神占] 운세 2월 9일 (음 12월 21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쥐 **60년생** 문서와 관련된 부분을 주의하세요. **72년생** 투자나 거래는 미루는게 좋습니다. **84년생** 부부,연인운이 좋으니 가족, 연인과 함께 하세요. **96년생** 꼭 가야 한다면 남쪽으로 가는게 좋습니다.

소 **49년생** 형제,친구와 함께 일을 도모하면 매우 좋습니다. **61년생** 거래를 하면 이득이 있습니다. **73년생** 명예가 오르니 하루이니 잘 활용하세요. **85년생** 재물운과 이성운이 모두 좋은 하루입니다.

호랑이 **50년생**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62년생** 구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언행에 주의하세요. **74년생** 가족을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86년생** 부모님과 의견이 달라도 따르는게 좋습니다.

토끼 **51년생** 여행을 가도 실속이 없고 피곤합니다. **63년생** 문단속과 물건 관리에 유의하세요. **75년생** 배우자나 연인과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7년생**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용 **52년생**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이 풀리는 하루입니다. **64년생** 동료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76년생**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결과가 좋습니다. **88년생** 싸우던 이와 화해할 수 있습니다.

뱀 **53년생** 여행하기 좋은 하루입니다. **65년생**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접근해 보세요. **77년생** 건강과 몸관리에 좀 더 신경쓰세요. **89년생** 혼자 생각보다는 동료와 의논하는게 좋습니다.

말 **54년생** 노력에 대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66년생**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78년생** 일보다는 가정을 먼저 돌보세요. **90년생** 큰 일을 위해 작은 손실은 감수하세요.

양 **55년생** 외출보다는 집에서 쉬는게 좋습니다. **67년생** 동업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79년생** 진행하는 일에 실속이 없으니 대안이 필요합니다. **91년생** 약속을 지키면 명예가 크게 오릅니다.

원숭이 **56년생** 주변 사람으로 인해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68년생** 고집보다는 조언을 듣는게 좋습니다. **80년생** 너무 욕심을 부리면 일을 그리칠 수 있습니다. **92년생** 과한 자신감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닭 **57년생** 내가 싫은 일은 남도 싫은 법입니다. **69년생** 여행이나 외출을 하면 운이 좋습니다. **81년생** 재물운이 있으니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93년생** 관심을 갖던 사람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개 **58년생** 힘들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70년생** 노력에 대한 과실이 매우 달콤합니다. **82년생**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니 기쁩니다. **94년생** 본인 생각대로 추진하는게 좋습니다.

돼지 **59년생** 고민은 많으나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71년생** 지금보다는 다음을 기약하세요. **83년생**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복이 있습니다. **95년생** 옛 친구에게 연락하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학대피해 받은 미성년 자녀 친권소송 직접 청구 길 열려

대법원 개정안 의결

부모의 학대나 폭력 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1991년 1월 제정된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위원회는 기존 조항을 대폭 손질해 통상 '약자'의 입장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의결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 제기가 가능했던 미성년 자녀에게 가족관계 가사소송 등을 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부모의 학대로 고통을 받지만 소송을 낼 수 없던 자녀는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이나 친권정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절차 보조인'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소송을 도와줄 어른을 찾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법원이 법률·상담 전문가인 절차 보조인을 연결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로 의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듣는다는 원칙도 명시된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 부모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 시한을 30일 이상 어기면 감치 명령이 내려진다. 게다가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과태료 처분 외에 직접지급과 담보제공 명령,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혼소송 중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 쪽 편의를 고려해 관할 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과 소송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조문도 신설되며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한 상임조정위원 제도도 도입된다.

법원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 개정안 1조의 목적·이념으로 천명했다"며 "사회 변화를 반영한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춥다, 추워!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고 찬바람에 체감기온이 영하 19도까지 내려가는 등 추위가 다시 찾아왔다. /연합뉴스



"돈 선거 근절합시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30일 앞둔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지방공무원 1만7561명 채용

작년보다 3474명 늘어… 방재안전직도 모집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만7561명의 지방공무원을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3474명 늘어난 규모로 사회복지 서비스 등 자치단체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분야별 채용 인원은 ▲일반직 1만6164명 ▲특정직(소방) 1356명 ▲별정직·임기제 41명이다.

또 장애인·저소득층·고졸 채용규모도 늘어난다. 7·9급 장애인 구분모집 인원은 작년보다 107명 늘어난 786명이며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지난해보다 70명 증원된 537명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가운데서도 3명이 선발될 예정이며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작년보다 17명 늘어난 284명을 선발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규모는 작년(632명)의 2배 이상인 1317명이고 이들은 오전 또는 오후에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재안전직은 7·9급으로 91명 모집한다.

각 시도의 시험 일정과 선발 인원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황재용기자

다가구주택 1500가구 저소득층에 임대

서울시는 올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주택 1500가구를 매입해 저소득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평균 보증금 1500만원에 월 15만원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장애인은 100% 이하)다.

또 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도 희망자와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12일부터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단지 이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시는 이 지역에서 50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 환경이 열악해 매입을 자제했던 정비사업 해제구역에 대해서도 공동체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황재용기자

흡연 경고그림 입법화 속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정부가 흡연의 폐해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경고그림의 담뱃갑 삽입을 본격 추진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흡연 경고그림 도입과 금연구역 확대, 건강증진기금의 금연사업 목적 사용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심의한다.

또 보건복지위는 흡연 경고그림 게시 의무화 방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경고그림 표기 법안을 둘러싼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분위기를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 의원이 경고그림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고그림 도입방안이 입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고그림은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가격정책만으로는 흡연율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흡연의 문제를 알리고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비가격정책 중 하나다.

한편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전세계 55개 국가가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특히 2001년 세계 최초로 경고그림을 추진한 캐나다는 도입 후 흡연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황재용기자

경찰, 22일까지 방범활동

경찰청이 설 전후인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적인 특별방범활동을 벌인다.

우선 15일까지는 금융기관과 원룸 지역, 현금다량 취급업소 등 범죄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진단을 하고 가정이나 상가에서 스스로 범죄위험을 진단할 수 있도록 자위방범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본격적인 설 연휴 기간인 16일부터는 방범진단 결과를 활용해 범죄취약지 위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방범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살인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 명절기간 발생하는 긴급사건에 대해서는 112 종합상황실과 지역경찰, 형사·교통 등 전 경찰이 총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특수강도·강간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단계별 경계경보 발령시스템'을 활용해 지휘요원의 근무를 강화하고 야간근무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황재용기자

인사

■병무청
◇서기관 승진 ▲대변인실 김용두 ▲감사담당관실 김용진 ▲병역자원국 김대년 ▲입영동원국 송태의 ▲사회복무국 정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보이사 지대범

부고

▲이귀순씨 별세, 이승홍(광남일보 경제부 기자)씨 조모상 = 7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101호, 발인 9일. (062)527-1000

▲이원범씨 별세, 이재광·남숙씨 부친상, 성인석(MG손해보험 부사장)씨 장인상 = 6일, 대전 평화원 장례식장 401호, 발인 9일 오전 7시30분, (042)531-4444

▲이홍식 씨 별세, 박중헌(나눔로또 관리본부장)씨 장인상 = 6일, 강동구 상일동 경희대병원 장례식장 21호, 발인 9일 오전 8시. (02)440-8800

▲유치순씨 별세,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씨 모친상 = 7일 오전 5시, 대전시 중구 대사동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042)280-8181

▲윤갑수씨 별세, 윤형선(로지움웍스 대표)·혜경씨 부친상, 김재동(강원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씨 장인상, 최혜선씨 시부상 = 7일 오전, 부산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051)256-7013, 010-9312-0288

▲하만업(86)씨 별세, 하현봉(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사업과장)씨 부친상 = 7일, 경남 진주시 초전동 284-1 진주전문장례식장 303호, 발인 9일 오전 7시. (055)759-4141

레쓰비 카페타임!
직장인 응원 경품 이벤트

레쓰비 카페타임 마시고, 캔 따개에 숨겨진 행운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직장인을 위한 10,049개의 응원경품이 쏟아집니다!

행사기간 : 2014년 12월 15일 ~ 2015년 2월 13일



참여방법 1

QR코드를 스캔하고
이벤트 사이트 방문
(www.cafetimeevent.co.kr)

참여방법 2

캔 따개 뒷면의
행운번호를 입력

A45B
3CD4

EVENT 1

- 18명 아이폰 6 (64GB)
- 18명 플레이스테이션 4
- 1만명 레쓰비 카페타임 모바일 상품권

EVENT 2

- 4명 200만원 여행상품권
- 4명 맥북 프로 13 (Retina, 128GB)
- 5명 캐논 EOS 700D

• 웹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 구분없이 행운번호 1개로 이벤트는 1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 행운번호 1개로 추첨/즉석 경품 이벤트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 여행상품권은 200만원 상당의 롯데JTB 여행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 레쓰비 카페타임 모바일 상품권은 익일 오전(평일 기준) 일괄 발송됩니다. • 경품은 상기 이미지와 다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경품 내역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 또는 부정확한 정보 입력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입력하신 정보는 이벤트 당첨 안내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